
碩士學位請求論文

開化期 國語教科書의 詩歌 研究

指導教授 梁 淳 珽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申 東 桓

1991年度

開化期 國語教科書의 詩歌 研究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申 東 桓

指導教授 梁 淳 玟

1991年 7月 日

申東桓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1年 月 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主審

_____ 印

副審

_____ 印

副審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目 次

I. 序 論	1
II. 本 論	6
1. 開化期 國語教科書 概觀	6
2. 開化期 國語教科書의 詩歌分析	16
(1) 標題面	16
(2) 主題面	19
(3) 形式面	40
(4) 文體面	61
III. 開化期 國語教科書 詩歌의 文學史的 意義	71
IV. 結 論	73
參考文獻	75
Summary	77
附 錄	



I. 序 論

원래 教育活動이란 입장에서 볼 때 온갖 영역의 문화생활 현상에 나타나는 각종 출판물, 제작물 및 각양의 기구와 자연, 사회, 역사적 배경을 가지는 문화재와 인물 생활 등 갖가지의 教材가 한없이 많다. 이것을 교육목적에 비춰서 일정한 과정을 구성, 출판한 것이 教科書인 것이다.¹⁾

教科書란 ① 교육적 활동, 즉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습지도나 교수를 할 때 학습활동을 효과적으로 매개하고 기타의 자료에 각각의 위치를 주는데 사용되는 사전적 지침서요, ② 교재를 체계있게 배열한 것으로 학습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학습 목적을 통일시키는 임무를 가진 것이며 일종의 參考書이기도 하다.

國語教科書는 그 교재 영역으로 봐서 ① 국어과 학습을 위한 전영역의 기준적 교재 또는 그 자료의 하나이고, ② 듣기, 말하기, 읽기, 짓기, 쓰기를 위한 전영역의 언어활동자료이며, ③ 시간적 공간적으로 문학, 이학, 실생활의 전영역을 이해, 기술, 생활화하기 위한 자료이다. 아울러 ④ 국어를 학습자에게 지도하기 위하여 교육적 의식아래 문학, 문장, 삽화, 도표 등으로 마련된 규범적 자료집이요 또 지침서이며 ⑤ 교재와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문장을 난이순으로 학년에 따라 배열한 교재이다. 여기에서 현재를 중심으로 한 과거와 미래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국어교과서의 개념들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개선되어야 할 過去の 概念은

① 문화재의 전승적 교육에 치중되어 문화과학에서 달성된 각종의 학문적 체계 내지는 지식을 수여한다는 생각.

1) 林憲道, 「國語教育資料事典」學文社, 1976, p.1219.

② 교재와 교과서를 교사와 학습자간에 필수적인 매개물 또는 규범으로 보는 생각.

③ 교과서를 절대적 권위체 내지는 의지물로 보고 전달식 입장에서만 본 주입주의적 생각 등이었고

이에 대해 미래에 지향하는 現在의 概念은

① 학습자의 능력, 필요, 소질과 환경에 대응하여 학습자에게 갖가지의 경험을 주어 문명, 문화재의 해석 능력과 문화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적인 해결 능력을 훈련, 기능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교육활동을 성립시키는 것이라는 생각.

② 학습자와 지도자의 주위에 있는 모든 善惡, 賢愚, 精粗, 成敗, 良·不良의 사물과 그것들의 현상은 모두 教材의 전형이고 勸懲의 표본이고, 학습자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바로 인도하는 지침 내지는 일부분이라는 생각.

③ 학습자가 교과서에 접하여 자기 자신의 성장을 이루는데 필요한 方便의 하나로써 그 능력에 적합해야 하며, 또 비판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는 생각 등이다.

이상의 차이는 時代的 教材觀의 추세이고, 교재의 본질적 가치는 兩者의 合一에 있는 것으로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 開化期 教科書는 오늘의 교과서의 효시가 되는 최초의 근대적 교과서로서 아울러 이질적 서양문화의 수용과 침략적 외세의 진출로 말미암은 당시의 복잡다단한 특수한 상황에서 편찬된 것이다. 즉, 위협받는 主權의 守護와 모순으로 가득찬 封建的 秩序와의 갈등 속에서 새로운 學校制度를 설치하고 새로운 내용의 教科書를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³⁾

開化期 國語教科書란 개화기의 국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편찬 간행된 國語科의 教材요, 教科書인데 이것은 조선조때의 서당식 교육, 또는 성균관의 교육 교

2) 임현도, 앞의 책, p.1221.

3) 韓國學文獻研究所, 「韓國開化期教科書」 아세아 문화사, 1977, p.3.

재에서 문명개화를 담은 학부의 주도 아래 많은 개화사상가들이 참여하여 편찬되었다.

開化期의 시기 설정에 대해선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異說이 있으나, 대부분 학자들은 1800년 후반기부터 1910년대에 이르는 약 40~50년간을 開化期라 하여 우리나라 역사 단계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教育面에서의 開化期는 元山學校가 창설되어 근대적 교육이 시작된 1883년부터 1911년 朝鮮教育令이 공포되기 전 약 28년간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教育이란 인간이 타고난 본래의 心性을 계발하여 건전한 社會活動에 適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의 普遍的인 目的일 뿐이다. 일단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봉착하면 교육도 이러한 보편적인 목적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國權을 빼앗기고 全民族이 異民族의 노예로 전락하느냐 마느냐의 시대적 상황이던 개화기에 설립된 수 많은 당시의 公, 私立 教育機關은 모두가 '教育救國'이라는 당면 목표를 지상의 이념으로 하였던 것이다.⁴⁾

이러한 開化運動은 政治的 開化·經濟的 開化·教育的 開化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시도되었는데, 그 중에서 政治的·經濟的 開化는 開化思想을 수용할 수 있는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제반조건이 제약으로 말미암아 모두 실패하였지만, 教育的 開化에 있어서는 뚜렷한 유산을 남겼다⁵⁾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教育 이외의 政治·經濟的 영역의 개화는 그 시초부터가 외세의 힘에 의해 시도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여 개화를 이룩하기란 그 기반이 미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政治的·經濟的 開化와는 달리 教育的 開化에 있어서는 자주의식의 기반 위에 '東道東器教育'에서 '東道西器教育'으로의 教育改革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즉 教育的 開化는 外勢의 힘에 의한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개화가 아니라, 비록 소수의

4) 洪一植, 「韓國開化의 文學思想研究」, 悅話堂, 1978, pp.82~84 참조.

5) 姜在彦, 韓國의 開化思想(서울: 比蜂出版社, 1981), p.267.

開化思想家들과 朝廷內的 개화층에 의하긴 하였으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教育的 開化는 文明開化를 수용함으로써 당시 조선의 教育制度 및 教育內容 전반에 걸쳐 教育을 改革하려는 것으로, 그 教育改革을 통해 社會의 開化를 이루는 데 궁극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教育開化를 “근대화의 걸잡이가 되며 국가의 富強과 權力을 결정하는 것이며, 國權의 大本이며, 나아가 국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권을 회복하는 수단”⁶⁾이라 인식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그 당시 개화사상가들은 西歐教育을 教育的 價値를 지닌 핵심적인 요소로 파악하기보다는, 國家的 內強外競의 富國強兵을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그들은 西歐教育을 통해 社會를 開化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開化運動을 전개했는데, 이러한 開化運動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서구열강들의 침탈에 대항하며, 나아가 자주국으로서의 국권을 수호하는 과업에까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이러한 課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西歐教育’을 널리 보급하는 일만이 현실적으로 절대필요한 시대적 요청이라는 판단하에, 자발적으로 ‘學校’를 설립하여 近代教育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세운 學校는 1905년 일본에 의해 강압적으로 乙巳保護條約이 체결되자 전국적으로 救國運動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10년 일본에 合併된 이후에는 皇民化教育(同化教育)에 대항하는 본거지로서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본 고에서의 연구 대상은 1895년에서 1910년까지 약 16년간에 학부의 주도아래 간행된 국어교과서이다. 그 자료는 亞細亞文化社刊 「韓國開化期教科書叢書」(전 8권, 1977)를 저본으로 한다.⁷⁾ 開化期 國語教科書는 42책이 되는데, 그 중 17종류의 책에 총 32수의 詩歌가 수록되어 있다. 개화기 시가에 있어서 장르인식은 詩와 歌가 분리

6) 金元姬, 韓國 開化期의 思想研究(서울 : 載東文化社, 1979), p.60.

7) 「韓國開化期教科書叢書」전8권, 아세아문화사, 1977.

되지 않은 '詩歌'의 미분화 상태에 머물러 있다. 청각적인 것에 호소하는 歌의 장르와 시각에 의존하는 詩의 장르가 혼효상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詩보다 歌의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것이 개화기였다. 개화기 여러 신문 잡지들의 발표매체에 사용된 장르 명칭을 볼 때 詩라는 문학으로서의 독립된 장르인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六堂에서 다소의 그러한 흔적이 보이지만 뚜렷한 것이 아니었고 1910년대 <매일신보>에 와서도 詩는 곧 漢詩를 가르켰던 것이다.⁸⁾ 그러므로 본고에서 시가라는 용어는 너무 모호한 점이 있으나, 국어교과서에는 歌辭, 唱歌, 新詩 등에 속하는 작품들이 섞여 있어 韻文으로 된 文學作品을 총칭하는 뜻으로 쓰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開化期 國語教科書 교재에 수록된 시가를 표제면, 주제면, 형식면, 문체면 등으로 分析하여, 그 시가 등이 개화기의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考察하는 데 있다. 개화기 국어교과서 시가연구는 시가작품의 문학적수법, 언어적 기법, 전체의 구성 및 구조에 관한 기술 등에 관심을 기울인 형식주의적 연구방법을 원용하여 개화기 국어교과서에 실린 시가의 標題面에서 文明開化를 위한 소재들이 얼마나 많이 取材되었으며, 主題面에 文明開化, 自主獨立, 愛國啓蒙, 富國強兵 등을 중심으로 한 開化思想이 얼마만큼 반영되었으며, 形式面, 文體面에는 어떤 특성이 있었는가를 考察하기로 한다.

개화기 국어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康允浩⁹⁾, 趙文濟¹⁰⁾ 교수와 그 밖에 朴注卿¹¹⁾의 업적들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키로 한다.

8) 金榮喆, 「韓國開化期詩歌의 장르연구」, 學文社, 1987, p. 39.

9) 康允浩, 「開化期の 教科用圖書」教育出版社, 1973.

10) 趙文濟, 「開化期の 成均館 教育과 國語科 教育의 研究」金圓卿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88.

「開化期の 國語科 教育의 研究(1)」, 1981.

「開化期の 國語科 教育의 研究(2)」, 1983.

「開化期の 國語科 教育의 研究(3)」, 金一根박사화갑기념 語文學論叢, 1985.

11) 朴注卿, 「開化期の 國語教育에 대한 一考察」-〈新訂尋常 小學을 중심으로 - 「語文教育論集」 제3집, 부산대 1909.

II. 本 論

1. 開化期 國語教科書 概觀

(1) 「國民小學讀本」

갑오개혁 이후 1895년 최초로 학부에서 편찬 간행한 국어교과서이다. 편제의 특징은 국한문 혼용체이며 모두 31과로 되어 있고, 문장도 비교적 장문형을 이루어서 뒤의 「新訂尋常小學」과 좋은 비교의 대상이 된다. 또한 비교적 수준 높은 한자가 많이 사용되어 있다. 面數는 총 72장 144면의 韓紙 韓裝本이다.¹²⁾

(2) 「小學讀本」

1897년에 학부 편집국에서 간행한 국어교과서이다. 韓紙 韓裝本으로 총 34장 60면에 달하고 있다. 제목이 「小學讀本」이나 엄격히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국어독본이라기보다 修身教科書의 성격과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 당시에는 신교육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아직 교과내용이 세분화되지 못했고 또한 교과서 편찬이 어려웠다. 당시 학부간행의 교과서 종류를 보아도 극히 소수였다는 것은 교과서가 교과목별로 간행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小學讀本」은 모두 5단원으로 편제되어 있다. 주로 역사적 명현의 행적을 내용으로 한 수덕증심의 윤리용교과서의 성격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국한문 혼용체이나 앞의 「國民小學讀本」보다도 難解한 한자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문장 또한 장문형이다.¹³⁾

12) 「韓國開化期教科書叢書1」 아세아문화사, 1977, p.1~152.

13) 앞의 책, pp.155~214.

(3) 「新訂尋常小學」

1896년에 학부간행의 국어교과서이다. 모두 3권 3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1권 28장 56면, 2권 38장 76면, 3권 49장 98면으로 되어 있으며 韓紙 韓裝으로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으나 「國民小學讀本」에 비해 한문사용이 평이하고 문장도 비교적 단형이다.

특히 「國民小學讀本」과 내용을 비교 검토해 보면 단원설정에 있어서, 전자는 국가, 역사 등을 중심으로 한 고차원적인 내용인데 반하여, 후자는 생활중심, 가정중심, 사회중심 등 비교적 평이한 단원 중심으로 엮어져 있다.

한가지 여기에 유의할 것은 「尋常小學」1권의 序를 보면 학부에서 새로운 교과서 편찬을 위하여 日人の 풍속 의복이 그대로 사용되고 심지어 日人の 기사가 단원의 일부로 편찬되어진 점은 일본의 정치적, 침략적 성격이 이미 교과서에까지 미치기 시작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좋은 표본이 된다.¹⁴⁾

(4) (普通學校學徒用) 「國語讀本」

1907년 2월 학부에서 직접 편찬 간행한 교과서로서 편집만 여기서하고 인쇄는 일본의 大日本圖書株式會社를 거쳐 발간되었다. 초판에는 「國語讀本」으로 발행되었다가 1908년 재판시에는 다소 내용이 정정되면서 「普通學校 學徒用 國語讀本」으로 발행되었다. 모두 8권 8책으로 편제한 이유는 당시의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이 4년제로 1년에 2권씩을 이수하도록 계획한 까닭이다. 이러한 학부에서의 보통학교 국어 교과서 편찬은 1908년까지 걸쳐 진행되어 마지막 8권이 1908년 3월에 발행되어 있다.

이러한 학부편찬 국어교과서의 기본성격은 순수한 민족교육용 교과서가 아니고 일제의 침략적 정치성의 저의를 면 것이다. 그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보면 권 1 「國旗」라는 단원 속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兩國旗가 게재된 삽화가 있다. 일본의 이웃

14) 앞의 책, pp.217~470.

나라이기 때문에 선린의 뜻으로 그 단원을 취급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일본의 국기를 제시함으로써 자국의 존재의식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권 6에 「三國과 日本」이란 단원은 일방적으로 일본사기를 근거로 한 일본의 任那國 지배설을 다루었으니 한국통치의 야망을 꿈꾸고 있던 그들의 공공연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여하튼 한말의 한국교육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제각기 기본성격이 다른 교과서를 사용하는 이중적 구조를 띠었으며, 이와 아울러 일제침략에 대항했던 사립학교의 교육정신이 얼마나 왕성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¹⁵⁾

(5) 「幼年必讀」

한말 국민학교 아동용 교과서로 편찬 간행된 일종의 학부 검인정용 교과서이다. 발행 연대는 광무 10년(1905) 5월 5일 편집겸 발행자 玄采의 명의로 간행되었다. 愛國思想의 환기를 위해 간행된 이 책은 역사 지리교육을 통하여 민족의 전통적 주체성을 확립시키고, 새로운 세계사정을 익혀 국제경쟁에서 자립할 수 있는 국민을 교육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교육대상이 유년에 한한 것으로 잘못 이해되기 쉬우나 편찬자의 의도는 장년, 노년층까지를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실제 이 책은 유년부터 노년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전국민이 애독한 국민적 교과서였던 것이다.

또한 자주독립, 애국애족 사상의 환기를 목적으로 간행되었기 때문에, 일제는 이러한 반일적이며 강한 민족주의적 성격을 지닌 이 책을 1909년 5월 5일자로 禁書措置했다.¹⁶⁾

(6) 「初等小學」

이 책은 1906년 10월에 발간되었다. 저작자 國民教育會, 발행소 역시 국민교육회

15) 앞의 책(六), pp.1~505.

16) 앞의 책(二), pp.11~218.

의 명의로 발간되었다. 체제와 판형은 洋紙 洋裝本으로 모두 8권 4책으로 되어 있다. 문체는 국한문혼용체이다. 판형은 국판보다 약간 큰 형으로 매권 7,80면의 분량으로 편제되었다. 을미조약을 전후하여 신교육의 기운이 크게 격양되면서 많은 교육회 교육단체가 탄생하였는데, 국민교육회도 이때에 결성된 신교육, 민족교육을 발양시키기 위한 교육단체로서 그 활동이 괄목한 바 있었다.

이 교과서의 발행목적이나 편찬 취의가 너무나 명확하였다. 신교육의 실현, 교육을 통한 국권회복운동에 주안점을 두어 철저한 민족주의 사상, 독립애국사상을 지녔던 한말의 대표적 교과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권 1, 2가 1학년용, 권 3, 4가 2학년용, 권 5, 6이 3학년용, 권 7, 8이 4학년용으로 4년간에 모두 이수하도록 편제되어 있다.

또한 이것은 국어독본이기 때문에 권 1, 2에서는 한글의 字母와 독음형성법, 단어성립등의 기초를 닦게 했으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 단원은 국토, 역사, 인물, 애국심 중심으로 구성되고 시사적 문제나 새로운 세계사정을 단원으로 취급하였다. 이는 애국적이고 주체적인 국민정신을 바탕으로 폭넓은 교양을 자습하도록 편제한 것이라 볼 수 있다.¹⁷⁾

(7) 「最新 初等小學」

이 책은 1908년 7월 편술겸 발행자 鄭寅號 명의로 발행된 초등용 국어교과서이다. 모두 4권 2책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이 한글의 기초적 음운조직과 활용을 이용한 단원구성의 방법을 택하고 있음은 다른 초등교과서와 비교하여 볼 때, 편제방법이나 내용면에서 대동소이한 것이라 하겠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상권에 교사용 小註를 달아 教授에 편하게 했으며 일자별 진도를 표시하여 진도계획에 따른 교수를 할 수 있게 한 점이라 하겠다.

17) 앞의 책(四), pp.1~429.

한일합방과 동시에 出版法을 통해서 일제는 이 책을 금서로 취급했다.¹⁸⁾

(8) 「勞動夜學讀本」

이 책은 1908년 7월 俞吉濬이 편찬한 국어교과서이다. 이 책의 편찬취지는 일면의 삽화를 통하여 잘 표현되고 있다. 즉 유길준과 노동자와의 악수하는 장면에서 「나라 위하여 일하고, 사람은 또한 배워야한다」는 그의 말은 교육 중에서도 특히 근로대중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유길준이 이 책을 특별히 편찬하게 된 동기는 그가 勞動夜學會 顧問職에 있었다는 점과 관계가 깊다. 그가 이와 같이 노동자 특히 근로대중을 위한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일찌기 미국유학과 서구 일주에서 얻은 새로운 지식, 특히 만인평등사상인 민주주의 사상에 뿌리를 둔 것이며 한말의 절박한 문제가 교육의 보급화 특히 대중교육의 성공이 국력배양의 저력이 됨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다.

이 책은 1909년 일제에 의하여 治安法 違反이란 이유로 금서되었던 책중의 하나이다.¹⁹⁾

(9) 「新纂初等小學」

이 책은 1909년 9월에 편집 겸 발행자 玄采, 발행 겸 총발매소 東美書市의 명의로 간행되었다. 1909년 8월 28일자 사립학교 朝鮮語科 초등교육 학도용으로 학부의 검정을 거쳐 발행된 일종의 국민학교용 국어 교과서이다.

이 책은 6권 6책으로 전과정을 이수하도록 편제되어 있다. 편제상의 특징은 별로 찾아볼 수 없고 다른 국어교과서의 편제와 같다. 한말의 교과서가 일제에 의하여 무수히 금서의 화를 입었는데 이 책은 이를 면하고 한일합방후인 1913년(朝鮮總督府 編纂教科書가 나오기 전)에 재판 발행되어 暫定的으로 사립학교용 교과서로 사용되

18) 앞의 책 (5), pp.179~367.

19) 앞의 책 (5), pp.403~497.

었다는 점을 미루어 다른 많은 한말 교과서와는 다른 점이 있다고 보아진다.²⁰⁾

(10) 「樵牧必知」

이 책은 1903년 제작자 鄭崙秀, 校閱者, 南宮億, 발행자는 安泰瑩의 명의로 발간되었다. 체제와 판형은 양지 양장본으로 상하 전 1책으로 되어있고 주문은 한글이며 새로 나오는 한자를 부기하고 여기에 훈음을 달아 학습에 편하게 하였다. 국형 총 142면에 달하고 있다. 이 책은 정규 국어독본이 아닌듯하며 내부 검열제를 거친 것을 보면 일반출판물로 발행하여 장차 문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편제된 일종의 독학용 연수 국어교과서라고 판단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 1장 부조지은(父子之恩)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기본도리에서 출발하여 일반실업문제 등 광범위한 단원구성으로 時宜에 맞도록 넓은 교양학습의 방향으로 편제되어 있다.²¹⁾

(11) 「高等小學讀本」

이 책은 1906년 11월 徽文義塾 편집부 편찬, 同人쇄부에서 발행한 중학교용 국어 교과서이다. 모두 2권 2책으로 되어 있으며 2권의 발행은 이보다 약간 늦어 1907년 1월에 발행되었다. 한말의 교과서는 학부편찬의 소수의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대개가 개인 저술의 검인정교과서나 학교자체에서 편집 발행하는 자체적 생산의 교과서 등 다양한 출판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신교육 실시에 따른 의욕적 템포와 이에 따른 제작 공급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따라서 각 학교별로 자체적 교과서의 편찬 제작이 있게 되었다. 특히 徽文義塾, 養正義塾, 普成中學校 그리고 基督敎系 學校에서는 이러한 교과서의 자체 발행이 많았다.

휘문의숙에서 발행한 교과서류는 당시 장지연이 塾長제임시였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그의 철저한 독립 자주사상이 작용했다 볼 수 있으며, 또한 장지연 자신이 지

20) 앞의 책(7), pp.5~518.

21) 앞의 책(4), pp.435~570.

은 교과서도 여기에서 많이 발행되었다는 점 등은 이를 의미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 책의 편찬 목적은 그 단원편제만 보아도 너무나 명확하다. 가령 권1에서 단원 설정의 일부를 살펴보면 제 1과 국가, 제 2과 대한, 제 4과 애국심, 제 5과 애국심(續), 제 6과 애국의 실, 제 7과 충의, 제 8과 독립의 순으로 되어 있어서 국가관념, 국민관념, 국토관념, 애국독립사상을 근본으로 교수하기에 주안점을 두었다.

1910년 10월 26일 한일합방과 동시에 일제는 출판법에 의해 이 책을 금서로 취급하였다.²²⁾

(12) 「初等女學讀本」

이 책은 한말에 발간된 여자용 국어교과서이다. 발행연대는 1908년 3월, 저자 李原競, 발행인 邊瑩中의 명의로 발행되었다. 본서 편찬의 취지를 그 序에서 찾아 보면 「한국여자는 교육의 素無하여 자립할 줄을 모르고 소학이 다만 縫衣炊飯하여 供人之具를 사하고 塗脂抹粉하여 悅己之容을 작함에 불과하다」하여 종래의 여자에 대한 무학 무교육을 歎하였으며 현금 문명시대를 대함에 여권문제가 크게 신장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여자교육이 남자교육보다 더 급하다고 하였다. 또한 여자교육은 입학초에 수신을 우선 교육하여 덕목을 기본으로 함이 필요하다 하였다. 따라서 이 책의 편성방향은 종래의 구교육에서 중시해 왔던, 여계, 백혼, 가혼 등 일용상행 지도를 중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의 편찬 취지나 이에 따른 단원 편제의 특성으로 보아 여자수신교과서라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²³⁾

(13) 「녀주讀本」

이 책은 1908년 4월 편집자 장지연, 발행소 광학서포의 명의로 간행되었다. 이는 여자교육을 위하여 전용으로 편찬된 국어교과서의 일종이다. 이러한 여자전용 교과

22) 앞의 책(5), pp.3~172.

23) 앞의 책(2), pp.225~293.

서가 한말교과서중 차지하는 숫자는 아주 미미하지만, 여자교육을 극도로 기피하고 이단시하였던 당시의 사회 구조에 하나의 변화를 의미하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의 편찬취지는 序跋文이 없어서 자세히 살필 수 없으나 그 상권 제 1장 총론에 「너주는 나라 빅성된 자의 어머니될 사름이나 교육이 발달된 후에 그 주너로 학여금 착훈사름을 일울지라 너주를 7로침이 곳 가명교육을 발달하야 국민의 지식을 인도하는 모범이 되느니라」고 하였으니 자녀교육의 중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본다.

편제의 내용과 단원구성을 보면 상권은 역사적으로 이름난 성모, 성부의 사적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여자의 도와 덕과 행실의 귀감을 삼게 한 것이며, 하권은 주로 중국과 서양 부인들의 사적을 중심으로 기술했다. 특히 서양 여성들이 국가를 위한 헌신과 활동상을 감격적으로 그려 한국여성의 새로운 정신적 혁명을 도모하고자 함이었다.

이 책은 1910년 11월 16일자 출판법 제16조에 의하여 일제에 의해 발매배프금지를 당하였다.²⁴⁾

(14) 「婦幼獨習」

본서는 1908년 7월 저술자 姜華錫, 발행자 李駿求의 명의로 발간된 것이다. 일종의 여자교육용 국어교과서이나 편제의 형식과 규격은 정규교과서와는 다르다. 말하자면 가정에서 독학용으로 쓰이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편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교육이 전연 무시되고 있었고 또한 뒤늦게 신교육의 세바람을 타고 공부하고 싶으나 이미 과년하여 학교에 입학하기 어렵다든가 가세가 빈한하여 진학못하는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문명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새로운 교육 신식 학문을 배우게 하기 위한다는 것이 편저자의 의도였다고 본다.

24) 앞의 책(8), pp.3~271.

이 책 편제의 특색은 상권은 주로 기초한자 하나하나에 훈음을 표기하고 이것을 다시 成語시킨 다음 한글로 풀이하였다. 하권은 좀더 정도를 높여 상단은 二字式의 한자숙어를 사용했으며 하단은 국한혼용문을 사용하여 역사, 시사 등의 문제를 취급하는 색다른 편제를 취하였으니 이것은 速成으로 국한문을 익혀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본다.²⁵⁾

(15) 「初等小學」

「初等小學」은 普成館著作, 發行所 普成館 名義로 발행된 일종의 초등용 국어교과서이다. 현재 이 책은 卷 1만 남아있고 또한 學部刊 「教科用圖書一覽」에도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편제 권수를 알 수 없으며 卷 1도 뒤가 낙장되고 板權欄이 탈락되어 발행연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편찬의 취지는 한말교과서가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수호코자 하는 애국애족의 사상과 독립자주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에 있었다.²⁶⁾

(16) 「蒙學必讀」

「蒙學必讀」은 초등저학년생과 초학자에게 국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편찬된 교과서로서 한글음운의 편성과 조직부터 하나하나의 단어구성 과정을 학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편제되어 있다.

발행연대나 발행소는 뒤의 판권란이 낙장되어 전연 알 수가 없고 단지 편술자에 대하여는 책 첫머리에 崔在學 편술이라고 하여 이를 밝힐 수 있다. 또한 이 「蒙學必讀」은 당시 학부에서 발간한 「教科用圖書一覽」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아마 학부의 검인정을 받지않는 독자적 출판의 교과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단원의 내용 중 천도교의 기사가 많은 것을 볼 때 이것이 천도교를 배경으로 했던 普成館의 간행

25) 앞의 책(8), pp.277~490.

26) 앞의 책(5), pp.435~482.

이 아닌가도 추측이 된다.²⁷⁾

(17) 「幼年必讀釋義」

「幼年必讀釋義」에 대하여는 이미 발간된 「幼年必讀」첫째책 범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一. 此外 又號有釋義四券 務望教師諸君子 審讀過 先悉 此書源委 以便教授兼以養成兒小輩思想

이라고 한 것을 보아 이것이 교사용 교과서로 특별히 편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玄采가 독본외에 이러한 교사용 교과서를 특별히 편찬발행한 의도는 그야말로 「幼年必讀」을 통하여 국민교육의 근본으로 삼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원 하나하나에도 세심한 주의를 관심과 역점을 가지고 教授하기를 목적으로 한 교수지침서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배려와 의도는 가령 卷 2의 「國民의 權利」를 보아서도 곧 알 수 있다. 「幼年必讀」에서는 겨우 3페이지도 미치지 못하게 다룬 단원내용을 釋義에 작성한 이것이 구체적으로 소단원 10개로 설정되어 이에 맞게 교수하도록 편찬되어 있다. 특히 釋義에서의 교수주안점이 本國歷史 本國地理 등에 역점을 두고 민족자강의 주체성 확립과 애국애족 사상 고취에 두고 있었다.

특차충과 그 범위는 이것이 교사용교과서였기 때문에 그 수가 한정되어 있는 점도 있으나 반면 이것이 교사용교과서로 특별히 편찬되었기 때문에 저자의 사상이나 목적의식을 폭넓게 다룬 문헌을 많이 수록했다는 것은 이것이 교과서를 떠나서 한말의 사상을 이해하고 살펴 볼 수 있는 전문적인 하나의 출판물로서의 의의를 더 크게 한다고 본다. 본서는 「幼年必讀」과 더불어 1909년 일제에 의하여 치안법 위반이란 이

27) 앞의 책(2), pp.299~400.

유로 압수, 금서조치 되었다.²⁸⁾

2. 開化期 國語教科書의 詩歌分析

(1) 標題面

開化期 國語教科書에 收錄된 詩歌의 標題는 다음과 같다.

教科書名	標題名	編著者	出版年月日	備考
新訂尋常小學卷二	訓練이라	學府編纂	建陽元年 2月上 辭	1896
新訂尋常小學卷三	비호기를 권잡이라	"	"	"
"	입은 하나이라	"	"	"
"	경성이라	"	"	"
"	소경이라	"	"	"
普通學校 學徒用 國語讀本卷五	紙鳶과 꿩이	"	隆熙 2年 3月 1日 初版. 隆熙 3年 3月 1日 再版. 隆熙 3年 11月 20日 3版	1906 1909 1909
"	驟 雨	"	"	"
"	時 間	"	"	"
普通學校 學徒用 國語讀本卷六	蝶	"	"	"
"	鐵 歌	"	"	"
"	雨	"	"	"
普通學校 學徒用 國語讀本卷七	漂 衣	"	隆熙 2年 3月 1日 初版 隆熙 3年 4月 10日 再版	1908 1909
"	善 友	"	"	"
幼 年 必 讀 卷 三	本分 직힐 일 一 玄 采	"	光武 11年 5月 5日	1907
"	本分 직힐 일 二	"	"	"
"	血 竹 歌 一	"	"	"
"	血 竹 歌 二	"	"	"
幼 年 必 讀 卷 四	獨 立 歌 一	"	"	"
"	獨 立 歌 二	"	"	"
"	獨 立 歌 三	"	"	"

28) 앞의 책, pp.3~486.

教科書名	標題名	編著者	出版年月日	備考
初等小學卷二	애국가	國民教育會	光武10年 12月 20日 初版 光武11年 6月 21日 再版	1906 1907
初等小學卷五	秋(一)(二)(三)	"	"	"
初等小學卷七	短歌(一)(二)(三)	"	"	"
最新初等小學卷二	運動歌	鄭寅琥	隆熙 2年 7月 20日	1908
最新初等小學卷三	"	"	"	"
勞動夜學讀本第一	六條歌	俞吉濬	隆熙 2年 7月 13日	1908
"	愛國歌	"	"	"
"	勞動歌	"	"	"

이상에서 보면 開化期 국어교과서 17종류의 책에 수록된 詩歌 32수는 학부 편찬 국어교과서에 13수, 민간인 편찬 국어교과서에 19수가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록되기 시작한 연대는 建陽元年(1896) 2월부터임을 알 수 있다. 이중 학부 편찬인 「新訂尋常小學」 권3의 〈비호기를 勸흥이라〉는 標題와 민간인 玄采가 편찬 「新纂初等小學」 권4의 〈學問을 勸흥〉의 標題와 내용이 동일한 시가임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學問을 權力흥은 생략하였다. 그러므로, 개화기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시가의 총수는 32수가 된다. 또한 개화기 국어교과서 17종중 7종류의 책에만 시가를 수록하고 있다.

1896년에서 1909년까지 학부가 편찬한 국어교과서의 경우, 標題가 文明開化처럼 비교적 치열해 보이지도 않는 日常性을 素材로 하고 있음을 본다. 다만 〈訓練이라〉는 標題에서 忠義와 勇敢을 다루었을 뿐이다. 반면, 1906년에서 1909년까지 민간이 편찬한 국어교과서의 경우 〈本分 직힐일〉, 〈血竹歌〉, 〈獨立歌〉, 〈愛國歌〉, 〈六條歌〉 등 開化·自主·獨立精神을 소재로 標題를 선정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정부정책보다 민간인들이 開化·自主·獨立을 강렬하게 의식하였다는 예증이 된다. 이 무렵의 政治的·時代的 狀況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이듬해인 1906년 1월에 李容翊이 러시아에서 暗殺되고, 2월에는 이 땅에 日帝 統監部가 설치되어 伊藤博文이 統監되고 우리의 국권을 유린하게 된다. 군부대신 李

根澤 피습사건이 터지고 이에 閔宗植 등이 洪州에서 抗日義兵을 일으키며, 李孝定, 張志淵 등이 大韓自強會를 조직하고 외세에 대응하여 구국운동을 벌인다. 6월에는 崔益鉉, 林炳瓚 등이 전라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9월에 日本對馬島에 유배된다. 이어 12월에 최익현이 日本 對馬島에서 죽고 이 해 孫秉熙가 東學을 고쳐 天道教를 세운다. 한편 李人植이 〈血의淚〉를 〈만세보〉에 연재하는 등 국내의 정치 상황이 충동적이고 격변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무렵에 民間이 편찬한 開化期 國語教科書에 開化·自主·獨立精神을 標題로 한 것은 開化思想家와 民間人들의 歷史와 時代意識의 반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표제는 독자와의 첫 만남에서 주어진 1차적 해석과 독서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의미의 2차적 해석을 필요로 한다. 標題에는 指示的 標題와 反語的 標題, 象徵的 標題가 있다. 指示的 標題는 작자가 텍스트 내용의 일부분이나 전체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미리서 전달해 주려는 경향이 강하고 이 標題에 직면한 독자의 1차적 해석은 텍스트 독서행위 과정에서 수정할 필요가 없이 의미를 구체화 하면 되는 標題인 것이다. 이와는 달리 反語的 標題는 작자가 텍스트 상황을 그대로가 아닌 逆으로 전달하거나 대조, 부정적 반응을 낳게하는 言述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는 아이러니를 인지함과 동시에 표제에 대한 재해석을 필요로 한다. 象徵的 標題는 작자가 개인적인 상징적 언술이나 반복 또는 생소한 標題를 채용하여 독자의 指示的 解釋으로는 전혀 텍스트 內的意味를 해석해낼 수 없거나, 표제 자체가 多樣性과 모호성을 갖고 있어 指示的 解釋이 불가능한 채 텍스트 독서에 들어가서 標題의 의미를 새롭게 획득해 낸다.²⁹⁾

開化期 國語教科書의 詩歌의 標題는 그 標題採擇의 방법이 미숙한 점이 드러난다. 한마디로 32수의 詩의 標題가 대체로 國文標題나 非名詞標題이기보다 漢文套 標題이면서 名詞標題가 많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고, 또한 그것은 指示的 標題로 작

29) 金貞嬭, 「韓國現代小說의 標題研究」 서강대석사논문, 1990, p.86.

자가 텍스트 내용의 일부분이나 전체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미리서 전달해 주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主題面

고찰 대상인 詩歌 32수를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① 修身이 3수, ② 충의 및 감투가 1수, ③ 勸學이 6수, ④ 自主獨立 및 애국사상이 9수, ④ 自然禮讚이 8수, ⑥ 근면이 1수, ⑦ 친구의 중요성이 1수, ⑧ 일상생활이 3수이다. 이제 그 시가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修身

修身은 어느 시대에서나 개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의 하나이지만 개화기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시가들에서는 다른 경우보다 훨씬 강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것은, 우선 그러한 주제의 시가가 수록된 책이 바로 교과서라는 점이 작용한 결과이겠지만 이와 함께 개화기임에도 불구하고 봉건사회의 규범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판단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입은. ㅎ나이로되. 귀는. ㄷ이요

그러하니. 말ㅎ기느. 적게ㅎ고

듯기느만이. ㅎ이올치.

입은. ㅎ나이로되. 눈은. ㄷ이요.

그러ㅎ니. 만히. 보고알아서

無益ㅎ이위기를. 아니ㅎ이올치.

입은. ㅎ나이로되. 손은. ㄷ이요.

그러ㅎ니. 飲食먹기보다.

일을. ㅅ절이나. ㅎ오. 일을. ㅅ절이나. ㅎ오.

—〈입은ㅎ나이라〉 全文 —

위 시가는 신체의 부위들인, 입·귀·눈·손을 제재로 사용하여 그것들의 바람직한 역할을 진술함으로써 행동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작품 전체의 중심은 '입'에 모아져 있다. 즉, 귀와 눈과 손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각각 둘씩이므로 많이 듣고, 많이 보고(알고), 많이 일을 해야 하는, 단일한 규범들이 제시되고 있을 뿐인데 비해 '입'에 대해서는 하나이므로 말하기를 적게하고 무익한 이야기를 하지 말며 많이 먹지말라는 복합적인 규범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항상 修身의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의 하나였음을 의미한다. 위 시가가 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작품이라면 다음 시가는 행동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작품이다.

남을.속이지말고.숨이지말며
 정성훈길을.직혀라
 마음을.便하게.가지고잇스라하면
 정성훈길을직혀라
 歲月을.즐기게지니라하면
 정성훈길을.직혀라.
 오날이누.너일이눈.變함이업게.
 정성훈길을.직혀라.
 무숨휼로운일을.맛날지라도
 정성훈길을.직혀라
 暫時도.이말을.잊지말고.
 정성훈길을.직혀라.

—〈정성이라〉 全文 —

“정성훈길을.직혀라”가 여섯번 반복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가의 주제

는 올바른 길을 통한 修身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 발휘할 수 있는 교훈적 기능을 이 작품은 최대한 발휘하였다. 이것은 명령형 종결어미는 물론이고 가정법적 표현을 통해서도 금방 확인된다.

어화어 화도홀시라	하나님의 높흔도화
이만물을 내어시니	나래주어 새가 날고
고기혜엄지느럼이	괴여가는 버러지에
뛰고 닳는네 발김생	그러흔 떼우리 사람
이목총명수족편리	도홀시고도흔중에
인의례지성품이며	효더충신행실이라
말삼으로통점하고	글자로논가리치니
신령홍도특이하고	영오홍도극진하다
어화도타이러하니	우리노릇홀양이면
큰근본이여섯가지	쉬지말고 닥그어라
사람되는우리도리	노치말고 직히어라
사람되는우리권리	넋지말고 행하여라
사람되는우리 의무	뛰어나게 높히오자
사람되는우리 자격	부지런히 힘쓰오자
사람되는우리 직업	질거옴게 누리오자
사람되는우리 복록	더식업시홀수잇나
정성으로배화보세	배호고도배호며는
못되는일업나리라	어화어 화도홀시고

-〈六條歌〉全文-

위의 시가에서는 특히 사회생활에서의 행동규범을 강조하고 있는데, 인간은 짐승과 다르다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인간이 인간노릇을 하려면 여섯가지 즉 도리·권리·의무·자격·직업·복록을 끊임없이 지키고, 행하고, 높이고, 힘쓰고, 누리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봉건사회의 규범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② 忠義 및 敢鬪

‘修身’의 주제를 나타내는 시가들이 봉건사회의 정신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 忠義 및 敢鬪의 주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정도가 더 강해진 면도 있다.

朝鮮國民되는者는.
我君. 我國爲홀지라.
膽氣. 勇略奮發하야.
敵兵. 萬若잇슬씨는.
목숨슬기. 不顧하고.
一段忠義힘써보세.
飛雨갓튼. 彈丸中에.
鬼神갓치. 다니면서.
鐵노민든. 城門을난.
一聲砲響에서치고.
구름갓치외인敵兵.
바름보듯훑터보세.

—〈訓練이라〉全文—

개화기에 씌어진 시가이므로 ‘彈丸’이라든지 ‘一聲砲響’과 같은 용어가 등장하긴 하지만 그 밑바탕에 흐르는 정신은 봉건주의적인 一段忠義이다. 이것은 ‘朝鮮國民되는者는 我君我國爲홀지라.’라는 개화와는 또 다른 차원의 시대적 요구에 그대로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勸學

한국인들은 朱文公의 勸學文과 白樂天의 勸學文에 매우 익숙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개화기 국어교과서에 勸學의 주제를 나타내는 시가가 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杏花며, 桃花는, 발서떠러지고
 三夏九秋는, 또, 어느, 겨울에, 다갓노뇨,
 白雪이, 霏霏하야, 今年이, 벌서, 歲暮로다.
 오는, 날을밧고, 게어르게말아,
 歲月은, 스름을, 기다리지, 아니하니,
 於焉間에, 少壯하던니가, 老大하야진다.
 不學하면, 無識하느니, 世上스름의게,
 譏弄을, 바들, 그씨에는,
 後悔하야, 슬퍼하야도, 効驗이업나니라.
 輒時스이라도, 虛送하지말고,
 各般才藝를, 學習하며, 古今歷代를, 達通하야,
 着實히, 工夫하면, 追後에는必然.
 有識스름으로, 될터이라,
 到底히工夫하라, 우리들

-〈비호기를 勸學이라〉 全文 -

위의 시가는 “오늘 배우지 않아도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올해 배우지 않아도 내년에도 있다고 말하지 말라, 날과 달은 간다.”고 한 朱文公의 勸學文을 연상하게 한다. 그런데 朱公文의 그것과 다른 점은, 不學하던 세상 사람에게 ‘譏弄’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시가는 이처럼 不學할 경우의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世上에, 소경이잇슴은,
 兒孩들도, 다알까 보오
 그러나두눈이 밝은
 소경도, 世上에잇느이다.
 文字란거슨, 우리들로하야곰, 古今事를,
 눈으로말뵈암아, 알게훈겨시나,
 文字를, 읽지못하흔者는, 엇지홀터이요,
 必然, 조곰도, 分間치못홀것시니,
 이런스름을, 俗談에.

눈뜬소경이라고. 일은다호오.
 두눈이 잇스면서.
 보지못하눈. 소경이되지말고.
 힘쓸것시라. 우리들은. 暫時도. 게으르게.
 마시옵시다.

-〈소경이라〉 全文 -

不學할 경우 소경은 ‘눈뜬 소경’일 수 밖에 없다. 위의 시가는, 세상에는 ‘눈뜬 소경’, ‘두눈이 밝은 소경’도 있는 법이니 잠시도 게으리 하지 말고 학문을 탐으라는 권학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의 시가에서는 다른 시가와는 달리 역설의 수법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어서 주목된다. ‘눈뜬 소경’, ‘두 눈이 밝은 소경’이 그러한 예들이다.

크고큰저참나무	도토리로싱겨 낮네.
地中에 깊히뭇쳐	적은색이 차차난다.
간흔뿌리실과긋치	이리저리 열키였고.
풀은입새적은가지	空中으로소사나서.
不知不識뭇뭇히에	根固枝敏하얏도다.
가지우에안진새는	도흔소리노릿하고.
그늘밧헤섯는牛羊	세를 지어피셔하네.

-〈短歌〉 (一) 全文 -

大洋中에珊瑚島는	적은벌레지음이라.
모래긋치적은겹질	모고모며쓰모은다.
낮과밤을쉬지안코	一心으로집을비니.
山도되고바회되야	나중에는大島되네.
草芽樹花여긋저긋	太陽빛헤찬란호오
여러힘을모고모면	못홀일이어디잇나.
쉬잔코부지런하면	못홀사업업느니라.

-〈短歌〉 (二) 全文 -

힘을쓰오힘을쓰오
古來文章事業家가
낮에빅고밤에넓어
日就月將결로되야
歲月이만타해도
이내몸이적다해도
우리나라잘되라면

힘을쓰어工夫호오.
工夫호야되얏느니.
熱心으로쉬지말면.
有名한이되고나네.
흔번가면오지안소.
國民中の호나이니.
工夫안코홀수업네.

-〈短歌〉(三) 全文 -

위의 시가 〈短歌〉(一), (二), (三)은 각각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내용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短歌〉(一)에서는 참나무의 성장과정과 그 후의 역할을, 〈短歌〉(二)에서는 珊瑚島의 형성과정에 따른 교훈을, 〈短歌〉(三)에서는 공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세 작품의 내용을 연결해 보면, '큰 참나무도 도토리로부터 이루어졌고, 큰 바다의 珊瑚島도 작은 벌레가 모이고 모이어 이루어진 것이니, 우리들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힘써 공부하면 이름난 文章家가 되고 우리나라도 잘 될 것이다.'의 내용이 된다.

烈火에 달커니고
집괴로뽕집어서
白番鍛鍊이서몸
強호면壽홀손가
자조쓰면빚지나고
빚나면시로움고
말듯거라靑年들아
黃糲白醜가득호야
學問을랑힘써 닦고

冷水에 담거니여
마차로두다리니
強호기기지업다
아니쓰면못호리라
아니쓰면록이논다
록슬면씩느니라
逸居無教홀작시면
草木同腐슬플지라
寶劍을랑자조갈게

-〈鐵歌〉 全文 -

위의 시가도 학문에 힘쓸 것을 권하고 있으나 그 주제를 표출하는 방법과 과정이

독특하다. 즉, 쇠를 불에 달구어 내고 냉수에 담그어 두드리면 매우 강해지는데 청년이 강해지려면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배척해야 할 것은 '逸居無教'이다. 결국 위의 시가에 있어서의 주제는 "學問을 랑힙싸닥고 寶劍을 랑자조갈계"에 있다.

④ 自主獨立 및 愛國思想

자주독립, 애국사상의 주제는 개화기 시대의 시대적 요구와 긴밀하게 관련된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자주독립, 애국사상의 주제가 국권상실이라는 시대 상황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문명을 수입하여 전세계에 일등국이 되자는 생각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제는 신문에 발표되었던 개화기 시가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주제표출의 방식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동창더군 여보우리 同窓諸君	소천년고국 四千年古國나라
본분 우리 本分직힘시다	이천만동포 二千萬同胞이빅성
슈당 隨唐은. 우리 敗將이오	동창더군 여보우리 同窓諸君
일본 日本은. 우리 弟子일세	본분 우리 本分직힘시다
슬푸구나. 슬푸구나	국권 國權은. 어디로. 가고
우리나라. 슬푸구나	의반 羈絆되기. 어인일가
이나라이. 업서지면	동포 우리 同胞엇지. 홀고

-〈本分 직힘일〉(一) 全文 -

동창더군 여보우리 同窓諸君	국민자유 國民自由국게직히
본분 우리 本分직힘시다	독립권리 獨立權利일치말세

유신사업
維新事業이나라
중흥공신
中興功臣우리로세
세계문명수입
世界文明輸入하야
만국옥帛회동
萬國玉帛會同홀세
이국이국 동포
愛國愛國우리同胞
세세인등
世界一等우리大韓

동창더군
여보우리同窓諸君
본분
우리本分직합시다
태극국기
太極國旗놉히달고
이국가
愛國歌를 불너보세

-〈本分 직할일〉(二) 全文 -

大韓每日申報 등에 수록된 개화기 시가에서는 국권상실의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 즉 저항의 방식이 강하다. 外敵侵略에 격렬히 항의할 뿐만 아니라 민족적 각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친일세력에 대해 신랄히 공격하는 한편 관료의 부패상과 주체성이 없는 행정을 통렬히 비판하기도 한다. 그런데 위의 시가는 그러한 점에 비하면, 정도가 약한 정도를 지나서 온건하기까지 한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교과서의 시가라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슬푸도다	슬푸도다	국치민욕 國耻民辱	지금성존 至今生存
국민 우리國民	슬푸도마	우리무리	면목 무습面目
슬푸도다	슬푸도다	저버렸네	저버렸네
국민 우리國民	슬푸도다	민중정 閔忠正을	저버렸네
한칼로	순국 殉國하든	구원명명 九原冥冥	저가운데
덩충대절 精忠大節	령혼 그靈魂	국민 우리國民	구버보네
슬푸도다	슬푸도다	일점보답 一點報答	무엇신가
자유국권 自由國權	빼기였소	이나라	무삼나라

금일 노래 今日奴隸	아닌가	파란 波蘭	과 埃及	이지
이나라	무슴 나라	슬푸도다	슬푸도다	
인도 印度	월남 越南	우리 국민	슬푸도다	
스총구간 四叢九幹	저디보쇼	청청 靑靑	흔저빗	또잇는 가
삼십삼엽 三十三葉	완연 完然	우리 국민	경계 警戒	로세
덜혈 精血	이모얏네	턴디조화 天地造化	만국 萬國	동루 同淚
충분 忠憤	이이로다	신인감동 神人感動	세계 世界	헌동 掀動

—〈血竹歌〉(一) 전문

슬푸도다	슬푸도다	국민 우리國民	슬푸도다
경계 警戒	로다	국민 우리國民	저디보쇼
롤남고도	신기하다	민중정 閔忠正	
어리석고	불상하다	국민 우리國民들	
삼천리강토 三千里疆土	이나라	우리눈물	저디에뿌려
이천만동포 二千萬同胞	이빅성	대한중흥 大韓中興	어서히보셔
노래 奴隸	되지말고	국치민욕 國耻民辱	어서씨셔
국권회복 國權恢復	호세	디하함쇼 地下含笑	민공 우리閔公
세계일등국 世界第一等國	이	이나라로다	
세계자유민 世界自由民	이	국민 이國民일세	
동포 同胞	저디보쇼	슬푸도다	슬푸도다
동포 同胞	저디보쇼	국민 우리國民	슬푸도다
슬푸도다	슬푸도다	국민 우리國民	슬푸도다

—〈血竹歌〉(二)全文—

위의 시가에서도 저항의 방식이 온건하다는 점은 그대로 지적될 수 있다. 閔忠正의 精忠大節을 기리는 의도가 저항 쪽으로 진전되는게 아니라 슬픔과 통곡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수히 반복된 “슬푸도다, 슬푸도다”는 이러한 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랑홀손사랑홀다	어화도타우리나라
거울인듯고혼물화	그림갓튼눈흔외라
단군이래사첫년에	부국강병거룩하
을지공의디락에는	슈양예가울고갓다
양만춘의용맹에는	당태종이흔이뻗다
자주독립이러하니	어느누가결을손가
예성문무태조황제	한양성에도읍하사
성자신손만만년에	동방던디문명하
우리동포여러형제	질거울사용장코나
아말되야효도이고	님금에게충성이라
이나라에백성되니	도홀시라경사로다
부세밧쳐다사리고	군사되야직히오자
우리의운비홀진대	곤륜산이눔홀손가
우리점성혜아리면	동해수도깊지안타
일월갓티광명하게	우리나라빛나이자
하날쳐름눔흐도록	우리나라밧들니라
물이거니불이거니	나라일을상양홀가
이내몸은죽드라도	남의욕은보지마자
이내집은뽀어져도	남의아래되지마라
닛지마소닛지마소	이마암을자나깨나
이천만이단테되야	삼천리의방패로다
어화어화도홀시고	이천만의일심이라
사랑홀다사랑홀다	우리나라사랑홀다
이천만의일심단테	사랑홀다우리나라

—〈愛國歌〉全文—

위의 시가에 이르면 이제 저항정신의 흔적은 거의 사라지고 나라 사랑의 길을 제시하여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함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그 많은 나라 사랑

의 길들 중에 공부에 힘을 쓰는 것이 나라사랑의 길임을 분명히 밝혀주는 같은 제목의 시가도 있다.

힘을쓰세	
	우리학도
공부위힌	
	힘을쓰세
힘을쓰세	
	우리학도
나라위힌	
	힘을쓰세

-〈愛國歌〉全文-

위의 시가는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통해, 공부에 힘쓰고 아울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권유하고 있다. 다른 시가의 경우와는 달리 주제가 역동적인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어서 독특한 면이 있다.

 독립 獨立 독립 獨立 청춘소년 靑春少年 우리 우리 독립 獨立 어이항이이디경 奴隷自取 노래 奴隷自取 어이항야이디경 卑屈自甘 비굴 卑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한 大韓 대한 大韓 대한 大韓 대한 大韓 대한 大韓
--	---

어이 할야이디경	슬푸고 ^분 헉다
청아 淸我밧다이디경	대한 우리大韓나라
어이 할야이디경	슬푸고 ^분 헉다
세스전미 世事全味이디경	대한 우리大韓나라

—〈獨立歌〉(一) 全文 —

독립 獨立헉세	우리나라
독립 獨立헉세	우리나라
슬푸고 ^분 헉다	어이 할야이디경
대한 우리大韓나라	군신상망 君臣相忘이디경
슬푸고 ^분 헉다	어이 할야이디경
대한 우리大韓나라	학정 學正헉다가이디경
슬푸고 ^분 헉다	어이 할야이디경
대한 우리大韓나라	의부 依附헉다가이디경
슬푸고 ^분 헉다	대한 우리大韓나라
어이 할야이디경	슬푸고 ^분 헉다
사름업서서이디경	대한 우리大韓나라
어이 할야이디경	
우준 愚蠢헉야서이디경	

—〈獨立歌〉(二) 全文 —

독립 獨立호세	우리나라
독립 獨立호세	독립 獨立호세
청춘소년 우리靑春少年	의뢰 依賴도고만두고
독립 어서獨立호세	즉립 自立호야보세
관작 官爵도고만두고	이나라우리나라
스계 私計도고만호게	남의나라아닐세
인민 인민 이人民우리人民	강산 강산 이江山우리江山
인민 남의人民아닐세	강산 남의江山아닐세
당당독립 대한 堂堂獨立우리大韓	청춘소년 우리靑春少年
세계일등 世界一等되야보세	독립 어서獨立호세
청춘소년 우리靑春少年	독립 어서獨立호세
독립 獨立이로다	대한 우리大韓을
독립 獨立이로다	독립 獨立이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獨立歌〉(三) 全文—

위의 시가 세수를 관류하고 있는 중심 생각은 물론 독립하자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놓여진 심리상태는 너무나 단순하고 심정적이다. 이러한 점은 교과서가 아닌 신문에 수록된 시가들의 경우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가령 大韓每日申報에 수록된 개화기 시가들은 애국사상을 고취하고 단결을 호소하며 위정자들의 비리를 고발함으로써 결국 자주독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끌어내고 있다. 또한 京鄕新聞에 수록된 시가들은 청소년 학도들에게 신교육사상을 고취하고 서구의 선진문명의 도입을 주

장하며 친일내각의 망국적인 작태를 규탄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시가는 “어이 할야 이디경”, “슬푸고 愁하다”가 무수히 반복되고 있어서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⑤ 自然禮讚

여기에서의 '對象'은 복합적인 대상이다. 그것은 계절, 기후가 되기도 하고 일상 생활의 사소한 행동이나 사물이 되기도 하며 동물이 되기도 한다.

서늘한계부는바람,	陰樹속에소리향네.
너풀너풀나는입새,	梧桐나무먼저안다.
못가운데고운련꽃,	반쯤굽어물에젖네.
늪흔가지우는매미,	번차례로매암매암.

-〈秋〉(一) 全文 -

소리업시오논이슬,	말근밤에빛이나네.
방울방울생긴나뭇,	풀꽃마다眞珠로다.
섬돌압헤鳳仙花는,	저진연지단장곱소.
쉬지않고우는蟋蟀,	추의재촉즉즉즉즉.

-〈秋〉(二) 全文 -

진애업시밝은저달,	半空中에걸너잇네.
둥굴둥굴되는影子,	수박덩이疑心업네.
江湖間에갈새꽃은,	싸에쌀너白雪갓소.
구름가에가는鴻雁,	동모블너기력기력.

-〈秋〉(三) 全文 -

위의 시가는 가을바람, 오동나무, 연꽃, 매미, 이슬, 봉선화, 귀뚜라미, 가을달, 갈대꽃, 기러기 등을 소재로 하여 가을의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

다. 그래서 위의 시가는, 자연이 예술의 영원한 소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한편, '가을'이라는 계절과는 무관한 대상에 대해서도 그 친근감은 마찬가지로 표현된다.

난딤업는 一陳狂風	검은구름모라다
· 먹장갈아끼언진듯	원하늘을덥더니
번기불이번적번적	우뢰소리우루루」
주먹 又 혼큰비방울	여의더의덧다가
함박으로퍼붓는듯	평평증증쫓아져
나모넵이너푼너푼	락슈물이주루루」
뢰성번리런힐나며	바름소리비소리
上天下地뒤늦는듯	瞬息間에鴻水나
시디물이출녕출녕	모퉁언덕우수수」
적은드시비가긱쳐	구름것고흰날제
彩色다리架設하듯	무지기가뿔쳐네
各色草木너홀너홀	덧눈이슬후두두

—〈驟雨〉全文—

비야비야오논비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어디로써나려왔노	하늘노써나려왔네
空中에서 내려왔네	
그前에논어디잇섯노	
河川에도잇섯고	池塘에도잇섯고
湖海에도잇섯네	
엇지하야올나갓노	
뜨거운뱃헤쫓여	水蒸氣가되여서
뭉게뭉게올라갓네	
只今어디로가려노	
河川으로가려하네	池塘으로가려하네
湖海로가려하네	

—〈雨〉全文—

그러한 대상들 중의 하나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이다. 〈驟雨〉는 소나기가 내리는 전후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雨〉는 내리는 비를 대상으로 동화적인 분위기에서 문답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위의 두 시가가 지니고 있는 공통점은 위의 두 시가를 쓴 시인 또는 화자와 ‘비’라는 대상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시인(화자)과 대상이 그 만큼 친근한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山谷間에 흐르는	뭍은물가에
더디안즌더 漂母	방망이 들고
이웃더 옷빨적에	하도 밧부다
히눈어이 빨나서	西山을 넘네
물에 잠가 두드려	얼는 행구고
다시 흔뵈워 짜	너리 말닐제
나모가지에 걸고	물뱃헤 편다
벗흔어이 엮어서	더디 말으네
멀니 뵈는山 언덕	회기도 회다
終日 托 履 屨 矣	다 말났스니
주섬주섬 거어서	가지고 간다
익는어이 절업서	빅굼하우네
서리오고바름찬	長長秋夜에
옷다듬는더소릭	이집더집서
장단맛쳐 應하니	듯기도도타
달은어이多情히	窓에 비치네

—〈漂衣〉全文—

올너라 연아 연아	활신 활신 올너라
공중에 나라가는	더소리 지보담도
올너라 연아 연아	좀더 좀더 늙적이」
도너라 핑이 핑이	얼누얼는도러라
바름에 핑핑도는	바름잡이보담도
도러라 핑이 핑이	좀더 좀더 빠르게」

—〈紙鳶과 핑이〉全文—

그러한 대상들 중에 포함되는 것들로는 ‘빨래하는옷’, ‘연’, ‘핑이’ 등이 있다. <漂衣>에는 ‘빨래하는 옷’이라는 뜻이지만 빨래하는 여인의 행동을 중심으로 시골의 풍경이 그려져 있고 <紙鳶과 핑이>에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연과 땅에서 ‘핑핑’ 도는 핑이가 대조적으로 그려져 있다. 위의 두 시가에서도 시인(화자)이 대상에 대해 보내는 눈길은 따뜻하다.

나비야더나비야	이리와셔노자노자
돛타여기花階우에	우슴웃듯뚝뚝였다
짚니도시롭거던	쌀맛쫓츠달곰홀사」
나비야더나비야	뚝속에서잠만자나
더뚝속에흔잠자고	이뚝속에쓰잠자나
잠끼여라봄늦는다	무슴뚝을꾸엇는가」
나비야더나비야	넙밋호로썩숨어라
너의一身날낙서라	너의날기져즐서라
모진바람빛겨블며	썩흔비가모라운다」

—〈蝴蝶〉全文—

위의 시가는 대상에 대한 친근감이 대상에 대한 우려(걱정)로 변한 경우이다. “나비야 더나비야 이리와셔 노자노자”라고 했을 때의 나비에 대한 친근감이 ‘잠만자고’ 또는 ‘또잠자’며 꿈을 꾸는 나비에 대한 우려로 변한 것이다. 이 경우 나비를 어떠한 것의 상징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은 차후에 더 다루어 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⑥ 勤勉

朱子學的인 봉건사회의 낡은 윤리에 의하면 노동은 양반사회에서는 기피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개화기에 이르러서는 노동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며 나라와 사회를 부강하고 문명하게 하는 수단으로 인식된다.

로동하는동포님네
 우리힘이나라되고
 수고롭다말삼마소
 인간사를도라보니
 그중에도척재됨은
 농부되야밭을갈고
 누에치고면화심어
 부귀공명므엇인고
 더사람네사는방법
 거룩홀사로동이야
 그누라서천타홀가
 정덕홍온마암으로
 헛말삼은순질으고
 남의일이내일이니
 추의더위므릅쓰고
 굴치안코어서호자
 약속시간어필손가
 일호기와품팔기논
 부모님을깃거이며
 편히놀고홀수잇나
 한집일만호지말고
 외줄기로목거노코
 산이라도빠힐지온
 바다라도머힐지니
 힘들이고쌈나이여
 우리나라부갑토록
 효성으로피는꽃을
 충성으로매진열매
 광명정대이러타시

대한남자우리로세
 우리쌈이사회되네
 움직이네우리세계
 만가지로버렸는데
 사는노릇세가질세
 목슈되야집을짓게
 길삼호니웃감일네
 성현호걸이것일세
 달너잇소우리손에
 우리노릇이러호데
 동포님네생각호게
 성실근면겸호얏네
 거짓행실뿌리흔케
 정성으로호야보세
 비장마와눈바라에
 맛튼일이집이되네
 세상만샤신이로세
 내힘으로내가사네
 안해자식길으기에
 괴로움이질김일세
 여러분이단체되게
 한결갓티움작이세
 어려운일잇다말게
 우전우전나아가세
 로동일세로동일세
 우리사회문명호게
 들이오자부모님께
 받치오자님금님께
 대한남자로동호네

—〈勞動歌〉全文—

위의 시가에서처럼 노동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리요, 방법이요, 수단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조선시대의 봉건주의적 생각과는 분리되는 것이다. 위의

시가에는 노동의 거룩함(“거룩홀사노동이야”, “그누라서천타홀가”)과 노동으로 하여 얻어지는 것들, 예를 들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아내와 자식을 기르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사회를 문명되게 하는 점들이 강조되어 있다.

⑦ 親舊의 重要性

옛날부터 동양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친구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한 항목이 되어 왔는데 개화기에도 이 점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은담는 그릇의 빛을 써라써
이리도 변하며 더리도 변하고.
사람은 사귀는 친구를 써라써
善하게도 되며 惡하게도 되오.
날보담 몇비나 優勝한 朋友를
擇하고 求하여야 써서 相從하고.
過失을 고치고 善行을 본받아
이 님몸도 賢人君子 되고 지고.

—〈善友〉全文—

친구의 중요성이라고 할 때 그 근거는, 사람은 친구에 따라서 善行과 惡行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賢人이나 君子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는 데에 있다. 위의 시가는 교과서가 지니고 있어야 할 교훈성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⑧ 日常生活

어허우리,	大韓帝國.
二千萬의,	男女同胞.
一千萬은,	男子되고.

一千萬은,	女子로다.
우리學徒,	學問씩은.
國家棟樑,	되리로다.
終日토록,	行樂타가.
凱旋歌로,	好還한다.
萬歲萬歲,	萬萬歲야.
大韓帝國,	萬萬歲야.

—〈運動歌〉全文—

大韓帝國의富強하기난
 우리學徒가擔當함내다
 工夫할새에運動잘하세
 許多事業을堪當하라면
 身體康健이第一福이오
 一當百하난競爭心으로
 太極旗下에愉快運動을
 千歲萬歲야우리學徒지
 大韓帝國이萬萬歲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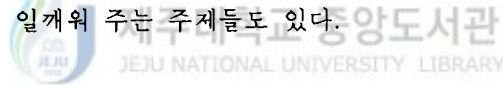
—〈運動歌〉全文—

時計가뎡뎡친다	어서어서너러나세	밤이발서시엿네
衣服을갈어넘게		아침밥이되엿네」
時計가뎡뎡친다	洗手하고밥먹은후	遲滯말고學校에
	冊싸서엽헤게	남보다문져가세」
時計가뎡뎡친다	工夫하세工夫하세	晝夜로부즈런케
	읽고쓰고외일제	다른모음두지말게」
時計가뎡뎡친다	活潑하게놀며가세	下學時間되엿네
	집으로얼른가서	快樂케노라보세」

—〈時間〉全文—

첫째의 〈運動歌〉는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신체건강을, 둘째의 〈運動歌〉는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학문과 즐거운 일들을, 마지막의 〈時間〉은 아침의 기상부터 하교할 때까지의, 시간에 맞추어진 생활을 각각 노래하고 있다. 위의 시가들은 그야말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되는 제재를 통해 평범하게 보이는 것들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러한 주제(내용)는, 大韓每日申報나 京郷新聞에 수록된 개화기 시가들에서는 결코 흔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다.

지금까지 논의하고 분석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먼저 개화기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시가들의 주제들 중에서 '修身'은 봉건사회의 개인이나 사회생활의 행동규범을 제시하는 쪽에 치중되어 있다. 忠義 및 敢鬪의 주제는 개화기에 씌어진 시가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정신은 봉건주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勸學의 주제는 중국 朱文公의 勸學文을 연상하게 하는데 不學의 경우를 '눈 뜬 소경'이라 지칭할 정도로 學問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自主獨立과 愛國思想의 주제는 大韓每日申報나 京郷新聞에 실린 시가들의 그것에 비해 정도가 약하다. 이외에, 계절, 기후, 일상생활의 사소한 행동이나 사물과 같은 대상에 대해 친근감을 보여주기도 하고 노동이나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며 일상생활의 평범한 것들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주제들도 있다.



(3) 形式面

형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장르별로 살펴보겠다. 먼저 창가형식부터 알아본다.

① 창가형식

朝鮮國民되느 者는,
 我君. 我國爲 扈지라.
 膽氣. 勇略奮發 하야.
 敵兵. 萬若잇슬찌는.
 독숨술기. 不顯 하고.
 一段忠義 힘버보세.

飛雨갓튼. 彈丸中에.
 鬼神갓치. 다니면서.
 鐵노킨든. 城門을난.
 一聲砲響에 췌치고.
 구름갓치되인 敵兵.
 바름보듯훗터보세.

-〈“訓練이라”〉全文 -

상기시가는 10행 ‘一聲砲響에 췌치고’는 5·3조의 외형률을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 행은 모두가 4·4조의 외형률을 가지고 있다. 1句 4음절로 될 平音步이다. 10행에 5音節句인 過音步와 語句 또는 語節마다 중지부를 찍어 띄어 읽기를 표시하고 있다. 聯의 구분이 없고 총 12句로 된 2音步의 唱歌形式이다.

을너라연아연아	활신활신을너라
공중에나라가는	더소리지보담도
을너라연아연아	좀더좀더늑직이」
도너라핑이핑이	얼누얼는도러라
바름에핑핑도는	바름감이보담도
도러라핑이핑이	좀더좀더빠르게」

-〈“紙鳶과 핑이”〉全文 -

각행마다 3·4조와 4·3조의 4音步로 된 唱歌形式이다. 聯의 구분을 “」로 分聯體라고 할 수 있다. 各 聯마다 “을너라”, “드러라”를 5句에 반복하고 있으며 총 12句로 된 4句 1聯의 형식이다.

난디업논—陳狂風	검은구름모라다
먹장갈아끼언진듯	원하늘을덥더니
버리불이번적번적	우뢰소리우루루」

주먹 又 흔큰비방울	여의더의덧다가
함박으로퍼붓는듯	평평쭈뚝쫓아져
나모님이너풀너풀	락슈물이주루루」
되성번기런힙나며	바름소리비소리
上天下地뒤늦는듯	瞬息間에 鴻水나
시디물이출녕출녕	모리언덕우수수」
적은드시비가긱쳐	구름것고힌날제
彩色다리 架設하듯	무지기가뺏쳐네
各色草木너홀너홀	덧논이슬후두두

-〈“驟雨”〉全文-

각행마다 4·4조와 4·3조의 외형률을 가진 4音步로 된 창가형식이다. 聯의 구분을 “」로 한 分聯體이다. 각련의 끝句 “우뢰소리 우루루”, “락슈물이 주루루”, “모리 언덕 우수수”, “덧논이슬 후루루” 등과 같이 韻을 맞추었고 그것이 의성어로 표현되었으며, 各 聯의 둘째句 “먹장갈아 씨언진듯”, “함박으로 퍼붓는듯”, “上天下地뒤늦는듯”, “彩色다리 架設하듯” 등과 같이 韻을 맞추었다. 총 24句로 6句 1聯의 형식이다.

時計가뎡뎡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어셔어셔너러나세 밤이발셔시엿네
 衣服을갈어넙게 아츰밤이되엿네」
 時計가뎡뎡친다 遲滯말고學校에
 洗手하고밥먹은후 남보다몬져가세」
 冊싸서엿헤끼게 晝夜로부즈런케
 時計가뎡뎡친다 읽고쓰고외일제 다른므음두지말게」
 時計가뎡뎡친다 活潑하게놀며가세 下學時間되엿네
 집으로얼른가서 快樂케노라보세」

-〈“時間”〉全文-

3·4조 행은 1행, 4행, 7행, 10행이다. 4·4조와 4·3조인 행은 2행, 5행, 8행, 11행이다. 3·4조와 4·3조인 행은 3행, 6행, 12행이다. 4·3조와 4·4조로 된 행은 9행이다. 창가형식으로 各聯을 “】”로 표시하고 있다. 各聯의 첫句 “時計가 멩뎅친다”를 반복하고 있다. 총 20句로 5句 1聯의 형식이다.

나빅야더나빅야	이리와셔노자노자
뫼타여기花階우에	우슴웃듯꽃뫼엿다
짚니도시롭거던	뫼맛뫼춧달곰홀사】
나빅야더나빅야	뫼속에서잠만자나
더뫼속에홀잠자고	이뫼속에또잠자나
잠끼여라뫼눅는다	무슴뫼을우엇는가】
나빅야더나빅야	넙뫼호로쑥숨어라
너의一身날닉서라	너의날끼져즐서라
모진바름뫼겨뫼며	을홀뫼비가모라운다】

—〈“蝶”〉全文—

3·4조와 4·4조로 되어있는 행은 1행, 3행, 4행, 7행이다. 4·4조와 4·4조로 된 행은 나머지 모든 행이다. 창가형식으로 各聯의 표시는 “】”로 한 分聯體이다. 총 18句로 6句 1聯의 4音步 형식이다.

烈火에 달켜니고	冷水에 담겨니여
집끼로뫼잡어서	마차로두다리니
白番鍛鍊이서뫼	强호끼끼지업다
强호면壽홀손가	아니쓰면뫼호리라
자조쓰면뫼지나고	아니쓰면뫼이는다
뫼나면시로움고	뫼슬면쑥느니라
말뫼거라靑年들아	逸居無教홀작시면
黃糲白醜가득호야	草木同腐슬뫼지라
學問을랑힘쑥뫼고	寶劍을랑자조갈게

—〈“鐵歌”〉全文—

각 행에서 3·4조와 3·4조로 된 행은 1행, 2행, 6행이다. 4·4조와 4·4조로 된 행은 5행, 7행, 8행, 9행이다. 4·3조와 3·4조인 행은 3행이다. 3·4조와 4·4조인 행은 4행이다. 창가형식으로 18句 4音步로 구성되어 있다.

비야비야오는비야	
어디로써나려왔노	하늘노써나려왔네
空中에서 내려왔네	
그前에논어디잇섯노	
河川에도잇섯고	池塘에도잇섯고
湖海에도잇섯네	
엇지향야올나갓노	
쓰거운뱃헤쫄여	水蒸氣가되여서
뭉게뭉게올라갓네	
只今어디로가려노	
河川으로가려하네	池塘으로가려하네
湖海로가려하네	

-〈雨〉全文-


각행에서 4·4조인 행은 1행, 3행, 7행, 9행이다. 4·3조인 행은 6행, 12행이다. 4·5조인 행은 4행이고 5·3조인 행은 10행이다. 4·4조와 4·4조인 행은 2행, 11행이다. 3·4조와 4·3조인 행은 8행이다. 4·3조와 4·3조인 행은 8행이다. 4音步의 문답형 창가형식으로 行의 위치로 聯을 구분하였고, 총 16句로 4句 1聯의 형식이다.

山谷間에 흐르는	몹은물가에
더괴안즌더漂母	방망이 들고
이웃더옷빨적에	하도뱃부다
히논어이쌀나서	西山을넘네
물에 잠가두드려	얼는행구고
다시 혼번취여싸	너러말닐제
나모가지에 걸고	물뱃헤편다

벗흔어이엷어서	더되말으네
멀니되논山언덕	희기도희다
終日토록한옷이	다말낫스니
주섬주섬것어서	가지고간다
이논어이철업서	비끓하우네
서리오고바름찬	長長秋夜에
옷다듬논더소릭	이집더집서
장단맞쳐應하니	듯기도도타
달은어이多情히	窓에비치네

-〈標衣〉全文-

각행에서 4·4조와 2·3조로 된 행은 1행, 3행, 5행, 6행, 8행, 13행, 14행, 16행이다. 4·3조와 3·2조로 된 행은 2행, 4행, 9행, 11행, 12행, 15행이다. 5·2조와 3·2조로 된 행은 7행이고 4·3조와 1·4조 행은 10행이다. 7·5조의 창가형식이고 총 32句로 3音步로 구성되어 있다. 聯의 표시는 없으나 4聯으로 구분할 수 있다. 各聯의 구분을 “히논 어이 쌀나서 西山을 넘네”, “벗흔어이 엷어서 더되말으네”, “이논 어이철업서 비끓하우네”, “달은 어이多情히 窓에 비치네” 등 ‘네’로 韻을 맞추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물은담논 그릇의빛을따라서	이리도변하며더리도변하고.
사름은사피논 친구를따라서	善하게도되며惡하게도되오.
날보담몇비나優勝한朋友를	擇하고求하야씨씨相從하고.
過失을고치고善行을본밧아	이늑몸도賢人君子되고지고.

-〈善友〉全文-

각 행에서 7·5조인 행은 1행이고 6·6조인 행은 2행, 3행, 4행, 6행, 7행이다. 6·

8조인 행은 5행이고 4·8조인 행은 8행으로 되어 있다. 6·6조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창가형식이다. 행과 종지부로 聯을 구분하고 있으며 총 16句로 구성되어 있다.

여보우리 ^{동창더군} 同窓諸君	스천년고국 四千年古國나라
우리 ^{본분} 本分직힙시다	이천만동포 二千萬同胞이빅성
슈당 ^{피장} 隨唐은. 우리敗將이오	동창더군 여보우리同窓諸君
일본 ^{대주} 日本은. 우리弟子일세	본분 우리本分직힙시다
슬푸구나. 슬푸구나	국권 國權은. 어디로. 가고
우리나라. 슬푸구나	의박 羈絆되기. 어인일가
이나라이. 업서지면	동포 우리同胞엇지. 홀고

-〈本分직힙일〉(一) 全文 -

각행에서 4·4조와 5·3조로 된 행은 1행, 2행이다. 3·6조와 4·4조로 된 행은 3행, 4행이다. 4·4조와 4·4조로 된 행은 6행, 7행이다. 4·4조와 3·5조로 된 행은 5행이다. 4音步로 된 창가형식으로 총 14句로 구성되어 있고 “여보우리同窓諸君”과 “우리本分직힙시다”가 반복되어 있다.

여보우리 ^{동창더군} 同窓諸君	국민자유 國民自由긋게직혀
우리 ^{본분} 本分직힙시다	독립권리 獨立權利일치말세
유신사업 維新事業이나라	동창더군 여보우리同窓諸君
중흥공신 中興功臣우리로세	본분 우리本分직힙시다
세계문명수입 世界文明輸入하야	태극국기 太極國旗높히달고

만국옥벽회동
萬國玉帛會同
인구인국 동포
愛國愛國우리同胞
세계일등
世界一等우리大韓

인국가
愛國歌를 불너보세

-〈本分직힐일〉(二) 全文 -

각행에서 4·4조와 4·4조로 된 행은 1행, 6행이다. 나머지 행은 모두 4·4조로 된 4音步의 창가형식으로 총 14句로 구성되어 있고 “여보 우리 同窓諸君”과 “우리本分 직힐시다”가 반복되어 있다.

슬푸도다	슬푸도다	국치민욕	지금성존
국민		國耻民辱	至今生存
우리國民	슬푸도다	우리무리	면목
			무습面目
슬푸도다	슬푸도다	저버렸네	저버렸네
국민		민충정	
우리國民	슬푸도다	閔忠正을	저버렸네
한칼로	순국	구원명명	저가운데
	殉國하든	九原冥冥	
영충대절	영혼	국민	구버보네
精忠大節	그靈魂	우리國民	
슬푸도다	슬푸도다	일점보답	무엇신가
		一點報答	
자유국권	세기였소	이나라	무삼나라
自由國權			
금일노래		파란	埃及이지
今日奴隸	이아닌가	波蘭과	
이나라	무습나라	슬푸도다	슬푸도다
인도	월남	국민	
印度와	越南일세	우리國民	슬푸도다
스총구가		청청	
四叢九幹	저디보쇼	靑靑한저빛	쏘잇는가
삼십삼엽	완연	국민	경계
三十三葉	완然하이	우리國民	警戒르세

덩혈 精血이모얏네	턴디조화 天地造化	만국 萬國이	동루 同淚하고
충분 忠憤이이로다	신이감동 神人感動	세계 世界가	헌동 掀動일세

-〈血竹歌〉(一) 全文 -

각행에서 4·4조와 4·4조로 된 행은 1행, 2행, 3행, 4행, 7행, 13행이다. 3·4조와 4·4조로 된 행은 5행, 10행, 11행이다. 4·3조와 4·4조로 된 행은 6행이다. 4·4조와 3·4조로 된 행은 8행, 9행이다. 4·4조와 5·4조로 된 행은 12행이다. 6·4조와 3·4조로 된 행은 14행, 15행이다. 대체로 4音步의 형식으로 짜여진 창가형식으로 총 30句로 구성되어 있다. 3~4行, 9~10行에 平音步, 小音步, 過音步 등이 나타나고 있다.

슬푸도다	슬푸도다	우리 국민	슬푸도다
경계 警戒로다	경계 警戒로다	우리 국민	저디보소
롤납고도	신기하다	우리 민중정	
어리석고	불상하다	우리 국민들	
삼천리강토 三千里疆土	이나라	우리 눈물	저디에 뿌려
이천만동포 二千萬同胞	이빅성	대한중흥 大韓中興	어서히보셔
노래 奴隸되지말고		국치민욕 國耻民辱	어서씨셔
국권회복 國權恢復하세		디하함소 地下含笑	민공 우리 閔公
세계일등국 世界一等國이		이나라로다	
세계자유민 世界自由民이		국민 이 국민일세	
동포 우리 同胞	저디보소	슬푸도다	슬푸드다

우리 ^{동포} 同胞	저 ^티 보소	우리 ^{국민} 國民	슬 ^푸 도다
슬 ^푸 도다	슬 ^푸 도다	우리 ^{국민} 國民	슬 ^푸 도다

-〈血竹歌〉(二) 全文 -

각행에서 4·4조와 4·4조인 행은 1행, 2행, 11행, 12행이다. 4·4·5조로 된 행은 3행, 4행이다. 5·3조와 4·5조인 행은 5행, 6행이다. 2·4조와 4·4조인 행은 7행, 8행이다. 2·4·5조인 행은 9행, 10행이다. 대체로 4音步의 형식으로 짜여진 창가형 식으로 총 26句로 구성되어 있다. 3~4行, 9~10行에 平音步, 小音步, 過音步 등이 나타나고 있다.

독립 獨立 ^{ᄃᆞᆫ} ᄃᆞᆫ	우리 나라
독립 獨立 ^{ᄃᆞᆫ} ᄃᆞᆫ	독립 獨立 ^{ᄃᆞᆫ} ᄃᆞᆫ
청춘소년 우리 靑春少年 ^{ᄃᆞᆫ} ᄃᆞᆫ	분 슬 ^푸 고 ^{ᄃᆞᆫ} ᄃᆞᆫ
독립 우리 나라 獨立 ^{ᄃᆞᆫ} ᄃᆞᆫ	대한 우리 大韓 ^{ᄃᆞᆫ} ᄃᆞᆫ
어이 ^{ᄃᆞᆫ} ᄃᆞᆫ 이 ^{ᄃᆞᆫ} ᄃᆞᆫ	분 슬 ^푸 고 ^{ᄃᆞᆫ} ᄃᆞᆫ
노레 ^{ᄃᆞᆫ} ᄃᆞᆫ 奴隸自取 ^{ᄃᆞᆫ} ᄃᆞᆫ	대한 우리 大韓 ^{ᄃᆞᆫ} ᄃᆞᆫ
어이 ^{ᄃᆞᆫ} ᄃᆞᆫ 이 ^{ᄃᆞᆫ} ᄃᆞᆫ	분 슬 ^푸 고 ^{ᄃᆞᆫ} ᄃᆞᆫ
비굴 ^{ᄃᆞᆫ} ᄃᆞᆫ 卑屈自甘 ^{ᄃᆞᆫ} ᄃᆞᆫ	대한 우리 大韓 ^{ᄃᆞᆫ} ᄃᆞᆫ
어이 ^{ᄃᆞᆫ} ᄃᆞᆫ 이 ^{ᄃᆞᆫ} ᄃᆞᆫ	분 슬 ^푸 고 ^{ᄃᆞᆫ} ᄃᆞᆫ
청아 淸我 ^{ᄃᆞᆫ} ᄃᆞᆫ 이 ^{ᄃᆞᆫ} ᄃᆞᆫ	대한 우리 大韓 ^{ᄃᆞᆫ} ᄃᆞᆫ
어이 ^{ᄃᆞᆫ} ᄃᆞᆫ 이 ^{ᄃᆞᆫ} ᄃᆞᆫ	분 슬 ^푸 고 ^{ᄃᆞᆫ} ᄃᆞᆫ
세 ^{ᄃᆞᆫ} ᄃᆞᆫ 전 ^{ᄃᆞᆫ} ᄃᆞᆫ 世事全味 ^{ᄃᆞᆫ} ᄃᆞᆫ	대한 우리 大韓 ^{ᄃᆞᆫ} ᄃᆞᆫ

-〈獨立歌〉(一) 全文 -

각행에서 4·4조로 된 행은 1행, 2행이다. 4·4·3·3조인 행은 3행이다. 4·4·2·4조 행은 4행이다. 4·3·3·3조인 행은 5행, 7행, 9행, 11행이다. 4·3·2·4조인 행은 6행, 8행, 10행, 12행이다. 22句의 창가형식으로 1~2행은 2音步로 되어 있고 그 밖의 行은 3音步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독립 獨立 ^독 하세	우리나라
독립 獨立 ^독 하세	우리나라
슬푸고 ^분 한다	어이 ^분 하야이디경
대한 우리大韓 ^분 나라	군신 ^분 상망 君臣相忘이디경
슬푸고 ^분 한다	어이 ^분 하야이디경
대한 우리大韓 ^분 나라	학정 學正 ^분 하다가이디경
슬푸고 ^분 한다	어이 ^분 하야이디경
대한 우리大韓 ^분 나라	의부 依附 ^분 하다가이디경
슬푸고 ^분 한다	대한 우리大韓 ^분 나라
어이 ^분 하야이디경	슬푸고 ^분 한다
사름업서셔이디경	대한 우리大韓 ^분 나라
어이 ^분 하야이디경	
우준 愚蠢 ^분 하야셔이디경	

-〈獨立歌〉(二) 全文 -

각행에서 4·4조인 행은 1행, 2행이다. 3·3·4·4조인 행은 3행, 5행, 7행이다. 2·4·4·3조인 행은 4행이다. 2·4·5·3조인 행은 6행, 8행이다. 3·3·2·4조인 행은 9행이다. 4·3·3·3조인 행은 10행이다. 5·3·2·4조인 행은 11행이다. 4·3

조인 행은 12행이고 5·3조인 행은 13행이다. 22句의 창가형식으로 1~2행과 12~13행은 2音步로 되어 있고 그 밖의 行은 3音步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 獨立하세	우리나라
독립 獨立하세	독립 獨立하세
청춘소년 우리靑春少年	의뢰 依賴도고만두고
독립 어서獨立하세	주립 自立하야보세
관작 官爵도고만두고	이나라우리나라
스계 私計도고만하계	남의나라아닐세
인민 인민 이人民우리人民	강산 강산 이江山우리江山
인민 남의人民아닐세	강산 남의江山아닐세
당당독립 대한 堂堂獨立우리大韓	청춘소년 우리靑春少年
세계일등 世界一等되야보세	독립 어서獨立하세
청춘소년 우리靑春少年	독립 어서獨立하세
독립 獨立이로다	대한 우리大韓을
독립 獨立이로다	독립 獨立이로다

—〈獨立歌〉(三) 全文 —

각행에서 4·4조인 행은 1행, 2행이다. 2·4·3·4조인 행은 3행이다. 2·4·4·2조인 행은 4행이다. 3·4·3·4조인 행은 5행, 7행이다. 3·4·4·3조인 행은 6행이다. 4·3·4·3조인 행은 8행이다. 4·4·2·4조인 행은 9행, 10행이다. 2·4·2·4조인 행은 11행이다. 5·5조인 행은 12행, 13행이다. 22句의 창가형식으로 1~2행과

12~13행은 2音步로 되어 있고 그 밖의 行은 3音步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힘을쓰세
우리 학도
공부위 힘
힘을쓰세
힘을쓰세
우리 학도
나라위 힘
힘을쓰세

—〈애국가〉全文—

상기 詩歌 전체가 4·4조로 된 창가형식으로 두 聯으로 구분되며 각 聯은 “힘을 쓰세”로 시작하여 “힘을 쓰세”로 끝맺고 있다. 총 4句로 구성된 2音步의 형식이다. 4句 1聯의 형식이다.

(一) 서늘하게 부는 바람, 陰樹속에 소리 흐네,
너풀너풀나는 입새, 梧桐나무먼져안다.
못가운데 고운련꽃, 빈좁굽어물에젖네.
높흔가지우는 맴이, 빈 차례로매암매암.
(二) 소리업시오논이슬, 말근밤에 빛이나네.
방울방울생긴 낮이, 물뭇마다眞珠로다.
섬돌압헤 鳳仙花는, 저진연지단장곱소.
쉬지않고우는 蟋蟀, 蟲의재촉즉즉즉즉.
(三) 진애업시 밝은저달, 半空中에 걸너잇네.
둥굴둥굴되는 影子, 수박덩이疑心업네.
江湖間에 갈매 씻은, 싸에살너白雪갓소.
구름가에 가는 鴻雁, 동모불너기력기력.

—〈秋〉(一)(二)(三)全文—

상기 詩歌 전체가 4·4·4·4조로 된 分聯體의 창가형식이다. 총 24句, 1聯 8句로 4音步의 형식이다.

(一) 크고큰저참나무	도토리로심겨났네.
地中에 깊히묵쳐	적은색이 차차난다.
간흔뿌리실과갯치	이리저리얼키였고.
풀은입새적은가지	空中으로소사나서.
不知不識몇몇히에	根固枝敏하얏도다.
가지우에안진새는	도흔소리노리하고.
그늘밧헤섯는牛羊	세를지어피셔하네.
(二) 大洋中에珊瑚島는	적은벌레지음이라.
모래갯치적은겹질	모고모며쓰모은다.
낮과밤을쉬지안코	一心으로집을비니.
산도되고바회되야	나중에는大島되네.
草芽樹花여디저디	太陽빛헤찬란하오
여러힘을모고모면	못홀일이어디잇나.
쉬잔코부지런하면	못홀사업업느니라.
(三) 힘을쓰오힘을쓰오	힘을쓰어工夫하오.
古來文章事業家가	工夫하야되얏느니.
낮에비고밤에넘어	熱心으로쉬지말면.
日就月將절로되야	有名한이되고나네.
歲月이만타해도	흔번가면오지안소.
이내몸이적다해도	國民中の 하나이니.
우리나라잘되라면	工夫안코홀수업네.

— “短歌” (一, 二, 三) 全文 —

상기 詩歌 (一), (二), (三)에서 3·4·4·4조인 행인 1행, 2행 19행, 3·5·4·4조인 행은 1행, 4행, 나머지 행은 4·4·4·4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4·4조 分聯體로 된 창가형식이며 총 42句 1聯 14句로 4音步의 형식이다.

어허우리,	大韓帝國.
二千萬의,	男女同胞.
一千萬은,	男子되고.
一千萬은,	女子로다.
우리學徒,	學問씩은.
國家棟樑,	되리로다.
終日토록,	行樂타가.
凱旋歌로,	好還한다.
萬歲萬歲,	萬萬歲야.
大韓帝國,	萬萬歲야.

— “運動歌에서” —

全行이 4·4조로 된 창가형식이고 총 10구로 구성되어 있다. 2音步의 형식이다.

大韓帝國的富強하기 난
 우리學徒가擔當함내 다
 工夫할때에 運動잘하세
 許多事業을堪當하라면
 身體康健이第一福이오
 一當百하난競爭心으로
 太極旗下에愉快運動을
 千歲萬歲야우리學徒지
 大韓帝國이萬萬歲로다.

全行이 5·5조로 된 창가형식이고 총 9구로 구성되어 있다. 2音步로 5음절 過音步의 형식이다.

이상으로 唱歌形式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가사체 형식의 詩歌를 살펴보기로 한다.

② 가사체 형식

어화어화도홀시라
 이만물을내어시니
 고기혜엄지느림이
 뛰고닷는네발김생
 이목총명수족편리
 인의례지성품이며
 말삼으로통점하고
 신령흠도특이하고
 어화도타이러하니
 큰근본이여섯가지
 사람되는우리도리
 사람되는우리권리
 사람되는우리의무
 사람되는우리자격
 사람되는우리직업
 사람되는우리복록
 정성으로배화보세
 못되는일업나리라

하나님의눔흔도화
 나래주어새가날고
 기여가는버리지에
 그러흔데우리사람
 도홀시고도흔중에
 효더충신행실이라
 글자로논가리치니
 영오흠도극진하다
 우리노릇홀양이면
 쉬지말고닥그러라
 노치말고직히어라
 낮지말고행하여라
 뛰어나게눔히오자
 부지런히힘쓰오자
 질거움게누리오자
 디식업시홀수잇나
 배호고도배호며는
 어화어화도홀시고

- “六條歌” 全文 -

全行이 4·4·4·4조로 구성된 4音步의 가사형식이다. “어화어화도홀시라”로 起句하여 “어화어화도홀시고”로 결구하고 있다. 총 36句로 구성되어 있다.

사랑홀손사랑홀다
 거울인듯고흔물과
 단군이래사첫년에
 을지공의디략에
 양만춘의용맹에는
 자주독립이러하니
 예성문무태조황대
 성자신손만만년에
 우리동포여러형데

어화도타우리나라
 그림갓튼눔흔되라
 부국강병거룩하다
 슈양예가울고갓다
 당태종이흔이뻗다
 어느누가결을손가
 한양성에도움하사
 동방던디문명하다
 질거울사용장코나

아말되야효도이고	님금에게충성이라
이나라에백성되니	도홀시라경사로다
부세받쳐다사리고	군사되야직히오자
우리괴운비홀진대	곤륜산이높홀손가
우리점성혜아리면	동해슈도김지안타
일월갓티광명호게	우리나라빛나이자
하날쳐름눔호도록	우리나라밭들니라
물이거니불이거니	나라일을상양홀가
이내몸은죽드라도	남의욕은보지마자
이내집은흔어져도	남의아래되지마라
넋지마소넋지마소	이마암을자나애나
이천만이단테되야	삼천리의방패로다
어화어화도홀시고	이천만의일심이랴
사랑홀다사랑홀다	우리나라사랑홀다
이천만의일심단테	사랑홀다우리나라

— “愛國歌” 全文 —

全行이 4·4·4·4조의 4音步로 된 가사형식이다. 총 48句로 구성되어 있다.

로동하는농포님네	대한남자우리로세
우리힘이나라되고	우리쌈이샤회되네
수고롭다말삼마소	움작이네우리세계
인간사를도라보니	만가지로버렸는데
그중에도첫재됨은	사는노릇세가길세
농부되야밭을갈고	목슈되야집을짓게
누에치고면화심어	길삼하니옷감일네
부귀공명므엇인고	성현호걸이것일세
더사람네사는방법	달너잇소우리손에
거룩홀사로동이야	우리노릇이러헌데
그누라서천타홀가	동포님네생각호게
정덕호운마암으로	성실근면겸호얏네
헛말삼은순질으고	거짓행실썩리흔케
남의일이내일이니	정성으로호야보세
츄의더위므름쓰고	비장마와눈바라에

굴치안코어서호자
 약속시간어쥬손가
 일하기와품팔기논
 부모님을깃거이며
 편히놀고홀수잇나
 한집일만호지말고
 외출기로목거노코
 산이라도빠힐지온
 바다라도머힐지니
 힘들이고째나이여
 우리나라부갑토록
 효성으로피는꽃을
 충성으로매진열매
 광명정대이러타시

맛튼일이짐이되네
 세상만샤신이로세
 내힘으로내가사네
 안해자식길으기에
 괴로움이질김일세
 여러분이단체되게
 한결갓티움작이세
 어려운일잇다말게
 우전우전나아가세
 로동일세로동일세
 우리샤회문명호게
 들이오자부모님께
 받치오자님금님께
 대한남자로동호네

— “勞動歌” 全文 —

全行이 4·4·4·4조의 4音步로 된 가사형식이다. 총 58句로 구성되어 있다. 이
 상으로 가사형식의 시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신체시의 시가형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③ 신체시 형식



杏花며. 桃花는. 발서떠러지고
 三夏九秋는. 또. 어느. 겨울에. 다갓는뇨.
 白雪이. 霏霏호야. 今年이. 벌서. 歲暮로다.
 .오는. 날을밧고. 게어르게말아.
 歲月은. 스름을. 기다리지. 아니호니.
 於焉間에. 少壯호던니가. 老大호야진다.
 不學호면. 無識호는니. 世上스름의계.
 譏弄을. 바들. 그썩에는.
 後悔호야. 슬퍼호야도. 効驗이업나니라.

暫時스이라도. 虛送하지 말고.
 各般才藝를. 學習하며. 古今歷代를. 達通하여.
 着實히. 工夫하면. 追後에는必然.
 有識한스름으로. 될터이라.
 到底히工夫하라. 우리들

—비호기를 勸함이라” 全文—

각행에서 1행은 3·3·6조, 2행은 5·1·2·3·4조, 3행은 3·4·3·2·4조, 4행은 2·4·6조, 5행은 3·3·4·4조, 6행은 4·6·6조, 7행은 4·5·6조, 8행은 3·2·4조, 9행은 4·5·7조, 10행은 6·6조, 11행은 5·4·5·4조, 12행은 3·4·6조, 13행은 7·4조, 14행은 7·3조로 구성되어 있어 각행의 음수율이 다르게 나타나 있다. 聯의 구분이 없고 총 28句로 된 新體詩 또는 不整形의 형식이다. 어절 또는 어구마다 종지부를 찍어 띄어 읽기를 표시하고 있다.

입은. 하나이로되. 귀는. 둘이요
 그러하니. 말하기는. 적게 하고
 듣기만이니. 흠이올치.
 입은. 하나이로되. 눈은. 둘이요.
 그러하니. 만히. 보고알아서
 無益한이이기를. 아니흠이올치.
 입은. 한이로되. 손은. 둘이요.
 그러하니. 飮食먹기보다.
 일을. 잡절이나. ㄱ오. 일을. 잡절이나. ㄱ오.

—입은 하나이라” 全文—

각행에서 2·5·2·3조 행은 1행, 4행, 7행, 4·8조행은 2행, 3·6조 행은 3행, 4·7조 행은 5행, 3·4·4·2조인 행은 6행, 4·6조행은 8행, 2·6·2·6조 행은 9행이다. 聯의 구분이 없고 총 14句로 된 新體詩 形式이다. 연장체 형식이다.

남을.속이지말고.꿈이지말며
 정성훈길을.직혀라
 마음을.便하게.가지고잇스라하면
 정성훈길을직혀라
 歲月을.즐기게지너라하면
 정성훈길을.직혀라.
 오날이누.너일이누.變함이업게.
 정성훈길을.직혀라.
 무슴쾌로운일을.맛날지라도
 정성훈길을.직혀라
 暫時도.이말을.잊지말고.
 정성훈길을.직혀라.

-〈정성이라〉全文-

각행에서 2·3·2·3·2조인 행은 1행, 3·2·3조인 경우는 2행, 4행, 6행, 8행, 10행, 12행, 3·3·3·5조인 행은 3행, 3·3·3·2조인 행은 5행, 4·4·3·2조인 행은 7행이며 2·3·2·5조인 행은 9행, 3·3·4인 행은 11행이다. 총 18구로 된 新體詩形式으로 2행, 4행, 6행, 8행, 10행, 12행 끝에 “정성훈길을직혀라”로 반복하고 있다. 연장체 형식이다.



世上에. 소경이잇슴은.
 兒孩들도. 다알까 보오
 그러나두눈이밝은
 스경도. 世上에잇누이다.
 文字란거슨. 우리들로하야곰. 古今事를.
 눈으로말미암아. 알게훈거시나.
 文字를. 읽지못훈者는. 엇지홀터이요.
 必然. 조곰도. 分間치못홀것시니.
 이런스름을. 俗談에.
 눈뜬소경이라고. 일은다하오.
 두눈이 잇스면서.

보지못하는. 소경이되지말고.
힘쓸것시라. 우리들은. 暫時도. 게어르게.
마시옵시다.

—〈소경이라〉 全文 —

각행에서 1행은 3·3·1조, 2행은 4·1·2·2조, 3행은 3·1·2·2조, 4행은 3·3·4조, 5행은 3·2·4·3·4조, 6행은 3·4·2·4조, 7행은 3·2·2·2·6조, 8행은 3·3·3·5조, 9행은 2·3·3조, 10행은 2·5·3·2조, 11행은 1·2·4조, 12행은 5·3·2·2조, 13행은 5·4·3·4·5조인 형식이다. 총 20句로 된 신체시 형식이다. 연장체 형식이다.

이상은 개화기 교과서의 시가 연구 중 형식적인 특색을 살펴보았다. 그 특색은 창가형식, 가사체형식, 신체시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형식면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기로 한다.

32수의 작품 가운데 창가형식이 25수이고 가사체형식이 3수이고 신체시 형식이 4수의 작품이며 다음으로는 分聯體나 連章體나로 보면 分聯體가 13개이고 連章體가 19개이다. 다음으로 句數別로 보면 4句가 1수, 8句가 3수, 9句가 1수, 10句가 1수, 12句가 2수, 14句가 6수, 16句가 2수, 18句가 3수, 20句가 2수, 22句가 3수, 24句 2수, 26句가 1수, 28句가 1수, 30句가 1수, 32句가 1수, 36句가 1수, 42句가 1수 48句가 1수, 58句가 1수이다.

(4) 文體面

문체는 그 형성요인의 관점에서 네 종류로 구분되는데,

첫째, 언어환경에서 형성된 문체, 둘째, 작가의 의도나 주제 기타 형식에 의하여 형성된 문체, 셋째, 독자에 의하여 형성된 문체, 넷째, 개인의 성품에 의하여 형성된 문체 등이 바로 그것이다.³⁰⁾

개화기 문체는 바로 첫째의 언어환경에 의하여 형성된 문체를 말한다. 개항 이후 물밀듯이 밀려 오는 서구 문물이 새로운 지식의 수용, 각종 제도의 개선과 사회 단체들의 결성, 학교 설립과 저널리즘의 속출 등의 급격한 사회변동은 언어생활에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회변동과 함께 진행된 개화 서민계층의 신분적 상승 역시 문자인식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된다. 문체가 계층구조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었던 만큼, 신분계층의 새로운 체계형성은 곧 문체의 새로운 질서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근대화와 함께 야기된 국권상실의 위기상황은 자주의식, 주체의식으로 고양되어 우리 것에 대한 애착으로 표면화하게 된다. 신채호가 「국한문의 경중」을 논하면서 민족주의 구현을 위해 국문을 사용하자는 주장을 펼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일본의 문체개혁 운동의 충격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외래적 요소였다. 「서유견문」뿐만 아니라 <만세보>의 「혈의루」의 표기방법 역시 일본식 문체의 영향이었다. 춘원과 육당의 신문장 건립운동도 일본 소설가 산전미묘와 장곡천삼엽정 등의 문장개혁 운동에 깊이 관련되고 있다.

이와 같이 외래 충격에 의한 사회변화, 새로운 질서의 형성은 문장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을 요구하게 된 것이며, 여기에서 국문체와 한문체의 문체 갈등이 야기되

30) 김상태, 「變異過程에서 본 開化期文體」 1991년 제34회 전국국어국문학회 연구발표 논문요지

었다. 개화기의 문체는 한문체, 국한문체, 국문체 등으로 대별되지만 갈등양상이 심화된 것은 국한문체와 국문체였다. 한문체와 국문체의 갈등 아닌 국한문체와 국문체의 갈등은 그만큼 한문 계층의 세력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며 계층상의 새로운 질서가 모색되고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뜻한다. 기독교 신자나 근대식 학교 교육을 받은 일반시민, 부녀자 등 국문세력층이 그만큼 신흥계층으로 부상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들의 이념지향, 가치체계가 그대로 문체에 투영되고 있었음은 재언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문체변화는 곧 계층변화와 자기질서의 변화에까지 연계되는 문체임을 알 수 있다.

국한문체의 최초의 문헌상의 등장은 1886년 1월에 나온 <한성주보>였다. 1883년 봄에 유길준이 박영효의 권유로 신문 창간을 준비하면서 국한문체로 하려 했으나 신문이 발간되지 못하고 결국 <한성주보>에서 그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 <한성주보>는 한문, 국한문, 국문등의 삼중구조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었다. 이어서 같은 해 5월에 鄭秉夏의 「農政 要」가 국한문체로 나온다. 1894년 갑오경장과 함께 공사문서에서도 국한문체가 일반화되어 같은 해에 <官報>가 국한문체로 발행되었다. 또한 1895년 국한문체로 쓴 유길준의 「서유견문」이 간행된다. 그러나 이 「서유견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개념어는 모두 한자로 쓰고 문법관계에 있는 것은 국문으로 표기하는 이른바, 漢主國從體문장이었다. 유길준은 국한문체 채택이유 중의 하나로 말을 쉽게 하여 문자를 略解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했는데 이는 문체변화 곧 계층변화와 밀접히 관련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곧 「서유견문」은 지식 보급을 위해서 좀더 대중적인 문체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같은 해 고종의 教育立國詔書가 국한문체로 나온 것도 특기할 일이었다. 1895년 학부에서 편집 간행한 소학교의 국어교과서 「국민 소학 독본」이 국한문체로 나온 후 이후의 모든 교과서가 국한문체로 나오게 된 것도 이러한 추세에 따른 결과였다.³¹⁾

이제 개화기 국어교과서 시가의 문체를 살펴보자.

31) 金榮喆, 「韓國開化期詩歌의 장르연구」, 學文社, 1987, pp.129~131.

朝鮮國民되논者는.
我君. 我國爲호지라.

.....

목숨슬기. 不顯호고.
一段忠義힘어보세.

-〈訓練이라〉에서 -

歲月은. 스름을. 기다리지. 아니호니.
於焉間에. 少狀호던니가. 老大호야진다.
不學호며. 無識호느니. 世上스름의제.
識弄을. 바들. 그찌에는.
後悔호야. 슬퍼호야도. 効驗이업나니라.
暫時스이라도. 虛送호지말고.
各般才藝를. 學習호며. 古今歷代를. 達通호야.

-〈비호기를 권함이라〉에서 -

위의 「訓練이라」, 「비호기를 권함이라」의 작품은 학부에 편찬 간행한 <신정심상소학>에 수록된 시가이다. 이들 시가의 문체가 바로 국한문체로 표현되어 있다. <신정심상소학>은 1895년에 학부가 최초로 간행한 「국민소학독본」에 이은 1896년에 간행된 국어 교과서이다. 「국민소학독본」은 그 편제가 국한문체로 그것도 비교적 수준이 높은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어 있는 반면에 <신정심상소학>은 국한문체로 되어 있으면서 한자어 사용이 평이한 것들이다.

난티업는 一陳狂風	검은구름모라다
먹장갈아끼언진듯	워하늘울덤더너
번키불이번적번적	우뢰소리우루루」

.....

괴성번지런힌나며	바람소리비소리
上天下地뒤늦는듯	瞬息間에鴻水나
시딕물이출렁출렁	모리언덕우수수!
	—〈驟雨에서〉—

時計가뎡뎡친다	
어셔어셔너러나세	밤이발셔시엿네
衣服을갈어넘게	아츨밤이되엿네」
時計가뎡뎡친다	
洗手하고밤먹은후	遲滯말고學校에
冊싸셔엽헤끼게	남보다몬져가세」
	—〈時間〉에서—

나뵈야더나뵈야	이리와셔노가노자
뚫타여기花階우에	우슴웃듯꽃뛰엿다
香니도식롭거던」	꽃맛죇츨달곰홀사!
나뵈야더나뵈야	꽃속에서잠만자나
더꽃속에흔잠자고	이꽃속에쓰잠자나
잠끼여라봄늦는다	무슴숨을꾸엇는가」
나뵈야더나뵈야	넙밋흐로속숨어라
너의一身날너셔라	너의날기져즐셔라
모진바람빅겨불며	急흔비가모라운다」
	—〈蝶〉에서—

위의 3), 4), 5)는 학부에서 1908년에 편찬 간행한 「보통학교학도용국어독본」에 수록된 시가이다. 학부간행 초기의 국어교과서의 시가의 문체가 국한문체로 표현되어 있음에 반해 한일합방 전에 간행된 학부의 국어교과서의 시가의 문체는 비록 국한문체가긴 하나 국문체의 언문일치의 표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경향임을 쉬 이해할 수 있다. 그 예로 4), 5)의 시가의 경우는 한자어 사용의 빈도가 현저히 약해져 5)의 시가의 경우 총 36구의 형식 속에 한자어가 3개가 사용되고 있다. 다음의 시가에서는

학부간행의 국어교과서이지만 국문체로 표현된 시가가 수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울너라연아연아	활신 활신울너라
공중에나라가는	더소리 지보담도
울너라연아연아	좀더 좀더 늙직이」
도너라핑이핑이	얼누얼는도러라
바람에핑핑도는	바람감이보담도
도러라핑이핑이	좀더 좀더 빠르게」

—〈紙鳶과 핏이〉全文—

위의 6)은 3), 4), 5)와 같은 「보통학교학도용국어독본」속에 수록된 시가인데 위의 1) 2) 3) 4) 5)에서 볼 수 있었던 국한문체로 표현되어 있지않고 완전한 국문체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일이다. 위의 시가는 7(3, 4) 7(4, 3)조의 창가형식이고 연의 구분을 “」로 한 이른바 분연체라 할 수 있다. 각 연마다 “울너라”, “도너라”를 五句에 반복하고 있으며 12구 1연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창가형식의 시가이기에 학부가 국어교과서를 편찬하게 될 때 종래의 국한문체 보다 국문체를 시도하였거나 이무렵 개화기의 언문일치 운동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문체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민간 편찬인 개화기 국어교과서의 시가의 문체를 살펴보자

힘을쓰세	우리학도
공부위힌	힘을쓰세
힘을쓰세	우리학도
나라위힌	힘을쓰세

—〈애국가〉全文—

위의 1)시가는 <初等小學>에 수록된 것이다. 국문체로 표기되어 있음을 본다. 그러나 같은 책에서 국한문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진애업시밤은저달,	半空中에 걸너이네.
둥글둥글비는影子,	수막덩이뵈心얼네.
江湖間에 갈때꽃은,	싸에알너白雪갓소.

-〈秋〉에서 -

어허우리,	大韓帝國.
二千萬의,	男女同胞.
一千萬은,	男子되고.
一千萬은,	女子로다.
우리學徒,	學問씩은.
國家棟樑,	되리르다.

-〈運動歌〉에서 -

위의 <秋>는 <초등소학>에 <運動歌>는 <최신초등소학>에 수록된 국한문체로 표현된 시가이다. 이밖에도 같은 교과서의 시가중에 <초등소학>의 <短歌>, <運動歌> 등도 국한문체로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중 <최신초등소학>의 <운동가>는 국한문체이면서도 漢主國文體로 漢字語 사용의 편향이 강하게 나타난 시가라 하겠다. 이어 한자어에 국문을 병기한 국한문체의 시가를 살펴보자.

동창더군 여보우리同窓諸君	스천년고국 四千年古國나라
본분 우리本分직힘시다	이천만동포 二千萬同胞이빅성
슈당 隨唐은. 우리 將이오	동창더군 여보우리同窓諸君
일본 日本은. 우리 弟子일세	본분 우리本分직힘시다

슬푸구나. 슬푸구나	국권 國權은. 어디로. 가고
우리나라. 슬푸구나	의반 羈絆되기. 어인일가
이나라이. 업서지면	동포 우리同胞엇지. 홀고

-〈本分직할일〉全文-

위의 시가는 1950년 5월 玄采가 편찬한 일종의 학부 검정인 교과서인〈幼年必讀〉에 수록되 있는 것이다. 애국사상의 환기를 위해 간행된 이 책은 일제에 의해 1909년 5월에 禁書措置를 당한 바 있다.

위의 시가 〈本分직할일〉(一)에서 보면 국한문체로 표현되었던 중 한자어에 국문을 병기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다. 때로는 음독이 아니라 훈독까지 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러한 〈유년필독〉의 교과서의 시가가 한자어 국문을 병기한 배려는 결국 독서 대중의 계층변화를 인식한 문체라 하겠다.

동창더군
여보우리同窓諸君
본분
우리本分직합시다
유신스업
維新事業이니나라
중흥공신
中興功臣우리로세
세계문명슈입
世界文明輸入하야
만국옥帛회동
萬國玉帛會同홀제
이국이국 동포
愛國愛國우리同胞
세계일등
世界一等우리大韓

국민자유
國民自由국제직혀

독립권리
獨立權利일치달세

동창더군
여보우리同窓諸君

본분
우리本分직합시다

태극국기
太極國旗높히달고

이국가
愛國歌를불너보세

-〈本分직할일〉(二)全文-

한칼로	순국 殉國	하든	구원명명 九原冥冥	저가운데
덩충대절 精忠大節	령혼 靈魂	그	국민 國民	구버보네

—〈血竹歌 一〉에서 —

삼천리강토 三千里疆土	이나라	우리눈물	격단의뿌려
이천만동포 二千萬同胞	이백성	대한중흥 大韓中興	어서히보세
느래 奴隸	되지말고	국차민욕 國耻民辱	어서세서
국권회복 國權恢復	하세	

—〈血竹歌 二〉에서 —

독립 獨立	하세	우리나라
독립 獨立	하세	독립 獨立
청춘소년 靑春少年	들아	분 슬푸고忿하다
독립 獨立	우리나라	대한 우리大韓나라

—〈獨立歌 一〉에서 —

대한 우리大韓나라	군신상망 君臣相忘이디경
분 슬푸고忿하다	어이하야이디경

—〈獨立歌 二〉에서 —

당당독립 堂堂獨立	대한 우리大韓	청춘소년 靑春少年
세계일등 世界一等	되야보세	독립 어서獨立

—〈獨立歌 三〉에서 —

위의 시가 1), 2), 3), 4), 5) 등에서도 시가의 문체로 국한문체이면서 한자어에 국문을 병기한 것을 볼 수 있다.

어화어화도홀시라	하나님의높흔도화
이만물을내어시니	나래주어새가날고

.....

어화도타이러흐니	우리노릇홀양이면
큰근본이여섯가지	쉬지말고닥그어라
사람되는우리도리	노치말고직히어라
사람되는우리권리	낮지말고행혀라
사람되는우리의무	뛰어나게높히오자
사람되는우리자격	부지런히힘쓰오자
사람되는우리직업	질거옴게누리오자
사람되는우리복록	디श्यक시홀수잇나
정성으로배화보세	배호고도배호며는
못되는일업나라라	어화어화도홀시고

-〈六條歌〉에서 -

위의 시가는 1980년 편찬한 〈勞動夜學讀本〉에 수록되어 있다. 순국문체로 표기되어 있는데, 순국문체 시가를 검토하는데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순국문이라 하더라도 한자를 그냥 우리말로 표기하는 경우인가 아니면 순수국어로서의 문체인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문어체와 구어체의 문체 곧 언문일치의 양상을 따지는 일이 된다. 문체는 순국문체이지만 한자를 단 국문으로서 딱딱한 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위의 시가 육조가는 4·4조의 가사형식이고, “어화어화도홀시라”로 起句하여 “어화어화도홀시고”로 結句하고 있어 총 72句로 구성되었는데 순국문체의 시가이나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가깝게 시가가 표현되어 있음을 본다. 이러한 국문체로 된 시가는 같은 〈勞動夜學讀本〉에 수록된 시가 〈愛國歌〉 〈勞動歌〉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마디로 개화기 국어교과서의 시가의 문체는 작가의 개인적인 문체가 아니라

언어환경인 시대적인 문체였다. 문명개화의 시대적 흐름을 수용 반영하기 위해 국한 문체, 한자어의 국문을 병기한 국한문체, 국문체 등 세가지가 혼용되었다.



Ⅲ. 開化期 國語教科書 詩歌의 文學史的 意義

개화기 국어교과서의 시가를 고찰해 볼 때 우선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교과서의 시가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교육적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사전적 지침서요, 학습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데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시가는 교과서의 이러한 근본적 성격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성을 갖는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개화기 국어교과서의 시가의 문학사적 의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화기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시가는 修身, 忠義 및 敢鬪와 같은, 봉건주의 시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진부한 주제를 담고 있는 측면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문을 권장하고 자주독립, 애국사상을 고취함으로써 개화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수용, 반영하고 있다. 문학은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지니고 있다.

둘째, 개화기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시가는 가사, 창가, 신체시의 형식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시가의 형식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은 조선조의 전통적 시가의 형식만을 고집하는 데서 결과되는 폐쇄성에서 벗어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셋째, 개화기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시가의 문체는 국한문체, 한자에 국문을 병기한 국한문체 국문체가 혼용된다. 이 세개의 문체는 바로 개화기의 문체이기도 한데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開化라는 근대적 시대의식의 갈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갈등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문체선택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개화기 국어교과서의 시가는 교과서의 시가이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의 목적성, 형식에 있어서의 경직성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그러나 詩와 歌가 분리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詩'가 근대시 쪽에 많이 移行하려는 과정에 있어서 본격적인 근대시의 출발에 무시할 수 없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IV. 結 論

本稿는 開化期 國語教科書 特히 讀本類에 수록되어 있는 詩歌를 標題面, 主題面, 形式面, 文體面 등으로 나누어 分析 考察하였다. 이제까지 논의한 내용을 결론삼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開化期 國語教科書는 1895년에 學部에서 출판된 「國民小學讀本」에서 1910년까지 약 16년간에 出版된 國語教科書로 17種이나 되고 이 중 4種은 學部 刊行이고 13種은 民間 刊行이었다. 이 13種 중 3種은 여자교육용 국어교과서이다.

둘째, 開化期 國語教科書중 民間刊行인 「幼年必讀」, 「勞動夜學讀本」, 「高等小學讀本」, 「너즈讀本」, 「最新初等小學」등 5種은 日帝에 의해 1909년에 治安法 違反이란 이유로 禁書되었다.

셋째, 開化期 國語教科書에 수록된 詩歌는 32수가 된다. 標題面에서 보면 학부가 편찬한 국어교과서의 경우 標題가 文明開化보다 日常性을 소재로 하고 있으나 민간 발행의 국어교과서의 경우 〈血竹歌〉, 〈獨立歌〉, 〈愛國歌〉 등 개화, 자주독립 정신을 소재로 指示的 標題를 선정하고 있다. 이는 학부정책보다 민간인들이 개화 자주독립을 강렬하게 의식하였다는 예증이 된다.

넷째, 主題面에서 보면 주제는 ① 修身, ② 忠義 및 敢鬪, ③ 勸學, ④ 自主獨立 및 愛國思想, ⑤ 自然禮讚, ⑥ 勤勉, ⑦ 親舊의 重要性, ⑧ 日常生活 등으로 나타났다. 학부간행의 교과서에는 주로 勸學, 日常生活을 주제로 한 시가가 수록되어 있는 반면, 민간 발행의 국어교과서에는 주로 自主獨立 및 愛國思想을 主題로 한 시가가 수록되어 있다. 민간인 발행의 교과서는 철저한 民族主義, 自主·獨立主義를 標榜하고 反日·排日的인 것이 全般的인 特色이었고, 학부편찬 교과서는 韓國教育을 統制하고 同化政策을 實現하려는 特色이 있었다.

다섯째, 形式面에서 보면 창가형식, 가사체형식, 신체시형식으로 나뉘는데 개화기 국어교과서 시가 32수 중 창가가 25수로 대부분 창가형식이다. 또한 分聯體가 13수 連章體가 19수이며 4.4조의 가사형식의 시가도 나타난다. 대체로 男性的 敎述的인 4音步의 시가가 많다.

여섯째, 文體面에서 보면 국문체와 국한문체 그리고 한자어에 국문병기한 국한문체로 나타나고 있다. 학부가 편찬한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시가 「紙鷲과 핑이」는 국문체로 표기되어 있다. 민간 발행의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시가 「애국가」, 「六條歌」, 「노동가」 등은 국문체로 표기되어 있다. 그 밖에 「運動歌」는 국한문체로 「本分직힐 일」, 「血竹歌」 「獨立歌」 등은 한자어에 국문을 병기한 국한문체로 표기되어 있다. 국문체로 표기된 경우에도 구어체이기보다 문어체의 흔적이 있어 언문일치의 변이 과정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 康允浩, 「開化期の 教科用 圖書」, 教育出版社, 1973.
- 강은해, 「개화기 가사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1979.
- 강창민, 「개화기 시가연구」, 『연세어문학』 16집, 1983.
- 丘仁煥, 「近代文學의 形成과 現實認識」, 한샘, 1983.
- 具重會, 「개화기 문학론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78.
- 金根洙, 「韓國開化期 詩歌集」, 太學社 1985.
- 金大幸, 「韓國詩歌 構造研究」, 三英社, 1976.
- 金榮喆, 「韓國開化期詩歌의 장르研究」, 學文社, 1987.
- 金容稷, 「韓國近代文學의 史的 理解」, 三英社, 1977.
- , 「개화기 문인들의 서구수용과 의식구조」 <진단학보> 442, 1978.
- 金允植, 「韓國現代文學史論攷」, 法文社, 1975.
- , 「개화기 문학양식의 문제점」 <동아문화> 12집, 서울대, 1973.
- 金澤東, 「韓國開化期 詩歌 研究」, 詩文學社, 1981.
- 김 현, 金允植, 「韓國文學史」, 民音社, 1973.
- 閔丙秀外, 「開化期の 愚國文學」, 新丘文化社, 1974.
- 白 鐵, 「朝鮮新文學思潮史」, 首善社, 1948.
- 成基玉, 「韓國詩歌의 律格體系研究」, 서울대 碩士論文, 1980.
- 宋敏鎬, 「韓國開化期小說의 史的 研究」, 一志社, 1975.
- 愼鏞廈, 「獨立協會研究」, 一潮閣, 1972.
- 愼鏞廈, 「韓國近代民族主義의 形成과 展開」,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7.
- 梁淳秘, 「國語教育論」, 大學文化社, 1985.
- , 「開化期の 諸問題」 조약돌, 1984.

- 예창해, 「개화기 시가와 율격의식」〈관악어문연구〉 9집 서울대, 1984.
- 李光麟, 「韓國開化史 研究」, 一潮閣, 1969.
- , 「韓國開化思想研究」, 一潮閣, 1979.
- 李基文, 「開化期の 國文研究」, 一潮閣, 1975.
- 李秉岐, 「白鐵, 國文學全史」, 新丘文化社, 1963.
- 李在銑外, 「開化期文學論」, 형설출판사, 1982.
- 李在銑, 「開化期修辭論」, 서강대 〈人文研究論集〉 1969.
- 林憲道, 「國語教育資料事典」, 學文社, 1976.
- 趙東一, 「新小説의 文學史的 性格」, 서울대학교 出版部, 1973.
- 趙文濟, 「開化期の 成均館 教育和 國語科 教育의 研究」, 仁山金圓卿博士華甲記念論
文集, 1988.
- 趙文濟, 「開化期の 國語科 教育의 研究(Ⅲ)」, 金一根博士華甲紀念 語文學論叢,
1985.
- 주승택, 「개화기의 한시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4.
- 洪一植, 「韓國開化期の 文學思想研究」, 悅話堂, 1980.
- 독립신문(축쇄판)
- 협성회회보, 미일신문(合冊)(영인본)
- 皇城新聞(影印本)
- 韓國開化期 文學叢書 新小説·翻譯(譯)小説 全十卷(영인본)
- 韓國開化期 雜誌叢書
- 開化期 國語教科書 全八卷

Summary

A Research on the Formation-process of Korean Literature

Sin Dong-whan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Soon-pil

This thesis was aimed at analyzing and inquiring into the poetry written in a Korean Reader(esp, a Reading book) in the field of title, subject, form, and style. It can be summarized like this :

1. The Korean reader in enlightenment was first published in 1895. The first one was 'The elementary Readers for the public.' The total numbers of Korean Readers is ranged 17 from 1895 to 1910 taking almost 16 years. Four of them were published by a faculty members, and the others were by civilians. Three of the thirteen were Korean Readers for women.
2. Some of the Korean Readers in enlightenment published by civilians, such as, 'The absolutely-necessary Readers for Youth', Readers for those working by day and studying at night', 'Readers for higher primary students' Readers for higher primary students', 'Readers for

women', 'The latest Readers for beginners' were banned in 1909 by Japanese on the ground of the violation of the law of public and security.

3. The number of poems written in Korean Reader at that time was 32. In the field of titles, The Korean Reader published by a faculty is intended to be subjected to the daily lives rather than the illumination of the illiterate, whereas the Korean Reader edited by civilians such as 'Bloodbamboo song', 'Independence song', 'The national anthem' select the instructive subjects, the enlightenment, and independent spirits. This means that civilians are more conscious of the enlightenment and independent spirit than faculty members.
4. In an aspect of subjects, moral culture training, loyalty and courageous fighting, scholarship encouragement, independent and patriotic spirit, the admiration of nature, encouragement of diligence, the importance of friendship, daily lives of people are dealt with. The Readers published by colleges mainly dealt with encouragement of scholarship, daily lives of people, while independent and patriotic poems are mostly written on the Readers by civilians. The readers by civilians profess themselves to be thorough nationalism, independence, and anti-Japanism was whole characteristic of it, while the Readers by faculty were intended to control the education of Korea and try to be Japanese.
5. In form, singing style is most common, on the other hand 4-4 meter singing style is also common. In general the mainly instructive 4-4 met-ets singing styles are common.
6. In view of writing style, Korean writing style and Korean-Chinese

writing style and Chinese character combined with Korean is shown. ‘paper kite and a top’ written on Korean Reader published by faculty members had been written in Korean writing style. The poetry, ‘the Korean national anthem’, ‘six lined song’, Labor’s song, etc. had been written in Korean style. Besides, song of sports has been written in Korean-chinese style, ‘Doing his best in his work’, ‘the song of blood-bamboo’, ‘the song of independence’, etc has been written by Chinese characters adding Korean ones. In case of Korean writing style, having been written more in literary style than a colloquial style, we can confirm it was in the process of transmission of unification of the written and spoken language.



私^스計^계도, 고만, 흥^흥계
 이^인人^민우^우리^인人^민
 남^남의^인人^민아^아닐^닐세
 堂^당堂^당獨^독立^립우^우리^리大^대韓^한
 世^세界^계一^일等^등되^되야^야보^보세
 우^우리^리靑^청春^춘少^소年^년
 獨^독立^립이^이로^로다
 獨^독立^립이^이로^로다

남^남의^의나^나라^라, 아^아닐^닐세
 이^강江^산山^산우^우리^리江^강山^산
 남^남의^의江^강山^산아^아닐^닐세
 우^우리^리靑^청春^춘少^소年^년
 어^어셔^셔獨^독立^립하^하세
 어^어셔^셔獨^독立^립하^하세
 우^우리^리大^대韓^한을
 獨^독立^립이^이로^로다
 獨^독立^립이^이로^로다

사 롬, 업 서 서, 어 디 경

우 리 大韓 나 라

어 이 흥 야, 이 디 경

愚 蠢 흥 야 서, 이 디 경

第二十七課

獨立歌三

獨 立 흥 세

우 리, 나 라

獨 立 흥 세

獨 立 흥 세

우 리 靑 春 少 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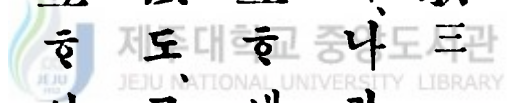
依 賴 도, 고 만, 두 고

어 서 獨 立 흥 세

自 立 흥 야, 보 세

官 爵 도, 고 만, 두 고

이 나 라, 우 리, 나 라



슬 푸 고 忿^분 하 다
 우 리 大^대 韓^한 나 라
 슬 푸 고 忿^분 하 다
 우 리 大^대 韓^한 나 라
 슬 푸 고 忿^분 하 다
 우 리 大^대 韓^한 나 라
 슬 푸 고 忿^분 하 다
 이 이 흥 야, 이 디 경

이 이 흥 야, 이 디 경
 君^군 臣^신 相^상 忘^망 이 디 경
 이 이 흥 야, 이 디 경
 虐^학 政^정 하 다 가, 이 디 경
 이 이 흥 야, 이 디 경
 依^의 附^부 하 다 가, 이 디 경
 우 리 大^대 韓^한 나 라
 슬 푸 고 忿^분 하 다

卑屈비굴自甘자감이디경

어이 흥야 이디경

淸俄청아밋다 이디경

어이 흥야 이디경

世事세사全昧전미이디경

第二十六課

獨立독립흥세

獨立독립흥세

우리大韓대한나라

슬푸고忿분흥다

우리大韓대한나라

슬푸고忿분흥다

우리大韓대한나라

獨立歌二

우리나라

獨立독립흥세

第二十五課

獨立歌一

獨立^{독립}하세

우리나라

獨立^{독립}하세

獨立^{독립}하세

우리青春^{청춘}少年^{소년}들아

슬푸고忿^분하다

우리나라獨立^{독립}하세

우리大韓^{대한}나라

어이하야, 이디경

슬푸고忿^분하다

奴隸^{노예}自取^{자취}이디경

우리大韓^{대한}나라

어이하야, 이디경

슬푸고忿^분하다

幼年必讀

卷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必然。조음도。分間치 못할 것시나。
이런 소름을。俗談에。

눈 뜬 소경이라고。일은 다 할 오。

두 눈이 잇스면서。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지 말고。

힘 쓸 것시라。우리들은 暫時도 게 어르게
마시옵시다。



第四課 소경이라

世上에 소경이 잇슴은.

兒孩들도 다 알싸보오

그러나 두눈이 밝은

소경도 世上에 잇는이다.

文字란 거슨 우리들로 할야 음 古事들.

눈으로 말미암아 알게 할거시나.

文字를 읽지 못 할者는 잇지 할터이요.

譏弄을 바들

그서에는

後悔하야 슬퍼하야도 効驗이 업나니라.

暫時스 이라도

虛送하지 말고

各般才藝를 學習하며 古 今 歷代를 達通하야

着實히 工夫하면

追後에는 必然

有識함스름으로

될터이라

到底히 工夫하라

우리들



세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第二課

비호기를, 勸함이라.

杏花며, 桃花는.

발서, 셔러지고.

三夏九秋는, 또.

어느, 결을에, 다가는, 또.

白雪이, 霏霏하야.

수년이, 벌서, 歲暮—로다.

오는, 날을, 밧고.

게, 어르, 게, 말아.

歲月은, 스름을

기, 다, 리, 지, 아, 니, 하니.

於, 焉, 間, 에.

少, 壯, 하, 던, 니, 가, 老, 大, 하, 야, 진, 다.

不, 學, 하, 면, 無, 識, 하, 는, 니

世, 上, 스, 름, 의, 게

정성할 길을 직혀라.

무심함으로 일을 맛날지라도

정성할 길을 직혀라

暫時도 이 말을 잊지 말고.

정성할 길을 직혀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第二十八課 正성이라

남을·속·이지·말고·꿈·이지·말며

정·성·할·길·을·직·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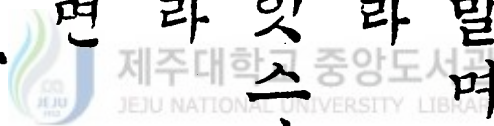
마·음·을·便·安·하·게·가·지·고·잇·스·라·하·면

정·성·할·길·을·직·혀·라

歲·月·을·즐·기·게·지·너·랴·하·면

정·성·할·길·을·직·혀·라

오·날·이·너·너·일·이·너·變·함·이·업·게



그러하니 飮食 먹기보다
일을 감절이나 할오 일을 감절이나 할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第十三課 口은 할 아 이 라

口은 할 나 이 로 되 귀 는 들 이 요
그 리 할 나 말 할 기 는 적 게 할 고
듯 기 는 만 이 흠 이 을 치

口은 할 나 이 로 되 눈 은 들 이 요

그 리 할 나 만 히 보 고 알 아 셔

無 益 할 이 의 기 를 야 나 흠 이 을 치

口은 할 아 이 로 되 손 은 들 이 요

新訂
尋常小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